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전시

상상을 더하다

- 김중만의 인권사진전
- Universal Design 전시·체험
- 장애인 아티스트전

체험

행복을 나누다

- 문화예술 체험·음악·영상·공예
- 뉴스포츠 play 체험
- Magic 과학 체험

이벤트

마음을 키우다

- 개막식 & 어울림 공연
- '손아람 & 김아타' 인문학콘서트
- 전국 합창경연대회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8년 9월

특별기획2_ 2022학년도 달라지는 대입과 고교 교육혁신



CONTENTS

September 2018 Vol. 434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특별기획 1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14 이런 수업 어때요 황지민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18 세계의 교육 변화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 실현 모색

43 특별기획 2

2022학년도 달라지는 대입과 고교 교육혁신



현장이야기

22 **지금! 혁신교육** 충북 행복씨앗학교_성화초등학교
우리가 만드는 학교, "주인공은 나야나"

26 **삶과 교육** 김영학 성호고등학교 교사
학교 혁신을 꿈꾸는 '현장교육 실험가'

30 **아해! 진로체험** 경남수학문화관

34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울진고등학교 봉사동아리

36 **클로즈업**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38 **명예기자 리포트** 슈퍼 기억력의 비밀 외

정책이야기

50 **정책N전망**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

52 **정책카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54 **이슈** 담쟁이 잎들이 손잡고 DMZ 벽을 넘다
DMZ 평화관광·교육 위해 판문점 및 DMZ 답사

56 **꽃 피는 교육자치** 전남/광주/강원/충남/대전

60 **초점, 4차 산업혁명** 트랜스 휴먼 시대의 인간과 인간 정체성



정보이야기

62 **교육 썰전**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한 세상

62 스마트한 세상, 학생 인권침해 vs 교권침해

64 LTE 넘어 해방공간을 찾아

66 **학급운영노트** 아이들이 평가를 두려워해요

68 **아이의 다락방** 중위권 성적인 예은이의 진로 고민

70 **이야기 인문학** 시로 그린 명절 풍경, 백석의 「여우난 굶 족(族)」

72 **일상의 쉼표** 성지의 명소 당진에서 마음을 씻다

76 **뉴스브리핑**

79 **행복 게시판**

표지이야기

성화초등학교(교장 최길수)는 충북 행복씨앗학교 4년차 학교로 충북 혁신교육을 이끄는 대표주자이다. 무엇보다 학교민주주의 꽃인 학생자치 활동이 돋보인다. 성화초의 학생회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학생자치가 아닌 학생이 주인공이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전교생이 함께 그린 퍼즐그림 앞에서 학생회 아이들이 각자 소중한 마음을 표현해 본다. "친구야~ 사랑해"

특별기획 ①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21세기에 당면한 문제들, 예컨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난민 문제, 다양한 형태의 차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지구촌 모두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교육적 사명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1_ 세계시민교육 왜 중요한가
- 2_ 네팔 오지에서 깨달은 세계시민의 참뜻
- 3_ 세계시민교육에서 바라본 다문화교육
- 4_ 역사로 배우는 평화와 연대 '우리는 하나'



세계시민교육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가 인천에서 개최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핵심의제로 지지한 세계시민교육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연이어 선언되면서 이와 관련된 실천적 의지의 국제적 공조로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별, 지역별로 달리 이해되고 교육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또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접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세계시민성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담아내고 이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정교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어느 선생님의 비유에 따르면, 무지개가 아름답고 실재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지만 다가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처럼 세계시민성 또한 그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구현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세계시민'이라는 추상체가 단순히 국경을 초월한 감성적 연대의식에 그치지 않고 연관된 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책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의 지향점과 중요성을 상기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및 지구촌 상황과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정의와 핵심 가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7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사회과교육의 인간상으로서 '세계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시민적 덕목으로써 상호 연결된 지구촌 상황에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정신 상태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주의 패러다



입을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과교육에 국한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세계화(globalization) 담론과 맞물려 활동 무대로서의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주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시민’이라는 용어가 사라지지만 내용상으로는 진일보하는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구촌의 다양한 관련 주제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유네스코가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교육(Learning to Live Together)’과 ‘모두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Teaching Respect for Al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21세기에 당면한 문제들, 예컨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난민 문제, 국가 간 폭력, 테러문제, 다양한 형태의 차별, 인권유린 등에 대한 범지구적 위기의식 및 초국경적 책무감의 공유와 현실적인 대처에 대한 필요성을 담아낼 교육적 사명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주도하고 있는 유네스코는 변혁적 교육의 형태로 이를 개념화하려 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그리고 태도를 교육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요약하는 틀을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이다. 또한 교육이 지식과 인지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들에게 가치, 소프트 역량, 그리고 태도를 길러 국제 협력에 도움이 되고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인 인류애를 기반으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조력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지향점이다.

인류의 미래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교육이 주도하는 인류공생·공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면 ‘세계시민’은 더 이상 추상체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인류공생·공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계시민성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은, 세계시민교육이 앞서 언급된 국제 선언과 합의 조항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시민교육에서 학습목표로 삼는 주요 주제와 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각종 NGO 또는 시민단체에 의해서 평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등의 제하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다루어져 왔던 것들이다. 즉 지금까지 국가별, 지역별, 단체별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분산된 노력을 결집해서 세계시민성이라는 하나의 정신적 구심체를 통해 소통시키고, 교육을 통해 축적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창의적인 교수법 및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이 곧 세계시민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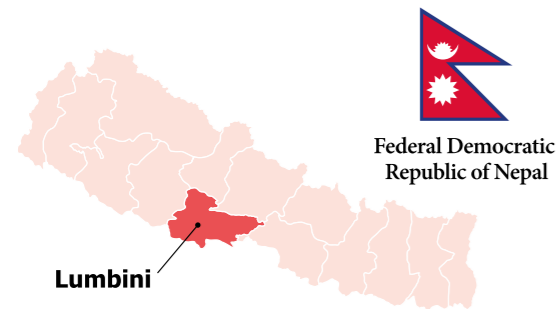
집단지성으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지식 창출 및 공유방식과 맞물려 전 인류가 당면한 각종 난제들을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통해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세계시민교육으로 포괄되는 새로운 정신운동이 요구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 교육의 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낼 필요를 상기시키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올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며 지구온난화를 걱정했고, 제주도에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수용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 밖에도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국수주의로의 회귀와 지역 간, 국가 간의 패권 다툼과 같은 엄중한 국제정세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한 새로운 과제이다. 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은 국가 간, 지역 간 연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소통과 대화를 필요로 한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지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나비효과와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미래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교육이 주도하는 인류공생·공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면 ‘세계시민’은 더 이상 추상체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㉓

네팔 오지에서 깨달은 세계시민의 참뜻

교사들이 국제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제 교육자원 활동을 통한 교육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국 교사를 비롯해 아시아 교사들의 협력과 상생을 목표로 시작한 교육개발협력 NGO 세계시민교육연구소가 대표적이다. 교사, 학부모, NGO 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네팔, 라오스, 몽골 3개국을 중심으로 교육자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도움을 주는 ‘봉사’를 넘어 서로 배우고 나누는 ‘교육자원’ 활동을 통해 이들은 세계시민을 키우는 교육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편집자 주>



설렘이 실망으로 바뀐 룸비니 방문 첫날

한국에서 3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하고 네팔 현장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결심하고 출발한 두 번째 국제 교육자원 활동. 한국 교사들에게는 막연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 비록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의 준비 상황과 그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교환하지는 못했지만 네팔에서는 일정한 교육과정도 없이 학습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 교육적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 무엇보다 네팔 교사들의 교육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정보 등은 교육의 오지로 출발하는 한국 교사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 ‘우리 한국 교사가 가서 할 일이 많을 거야. 우리가 가면 틀림없이 반가워하겠지. 뭐든지 다 가르쳐 주고 고쳐 주어야겠다.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야.’ 그러나 우리를 맞이해 준 것은 비 오는 새벽, 어둡고 습한 룸비니의 짙은 안개와 캄캄하고 적막한 낡은 학교의 낙숫물 소리뿐이었다.

이곳은 석가모니의 고향 네팔 룸비니. 우리 활동단이 룸비니 마을에 도착한 것은 비가 내리는 새벽 1시경.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10여 시간을 덜덜거리고 달려온 우리는 다시 엉덩이가 부서질 듯한 경운기에 몸을 싣고 불빛 하나 없는 긴 진흙길을 달려 캄캄한 학교에 도착했다.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고 찾아온 우리를 마중해 주는

네팔에서 교육자원 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8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와 파트너십을 신뢰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교육 현장에 맞게 서로의 교육자원을 나누는 경험은 한국과 네팔의 교사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교사리더십을 발전시킨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깨달음과 소중함을 실감했던 것은 아니었다. 2012년 네팔의 평원지역이며 교육적으로 가장 열악한 룸비니의 농촌학교를 찾아갔을 때, 비가 퍼붓는 새벽 1시 컴컴한 학교에 흙투성이가 된 짐을 풀면서 느꼈던 그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무의식적 자만심과 잘못된 파트너십을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네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비즈를 ‘햇빛이 주는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네팔 선생님들이야말로 ‘히말라야가 준 선물’ 같았다.

그 누군가는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불도 켜지지 않은 공사 중의 학교를 보자 실망과 허탈감으로 바뀌었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룸비니 농촌의 문화를 알지 못했던 우리 활동단은 새벽 1시에 우리를 기다리지 않은 네팔 교사들을 원망했다.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이번 룸비니 학교에서는 과학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여러 가지 과학교재를 준비해 왔다.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자외선 비즈, 색의 복합관계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색팽이. 그것 이외 과목도 알차게

1. 2. 네팔 교사와 함께 한 과학교과 워크숍



의욕 없는 현지 교사와 야심차게 준비한 수업 무산

거뭇 부타 초등학교는 허름한 초가로 그들이 만든 ‘그늘 교실’, 좁고 낡은 콘크리트 방인 ‘창고 교실’, 커다란 나무 밑에 칠판을 옮긴 ‘나무 밑 교실’의 총 3개 교실이 전부인 열악한 학교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단 1명이고, 자격증이 없는 3명의 교사가 15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다행히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이 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고, 우리는 준공식을 한 달 앞두고 이곳에 도착했다.

깊은 실망과 피곤에도 불구하고 네팔 교사와의 워크숍 준비를 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운 한국 선생님들은 아침 8시에 네팔 선생님들과 워크숍을 강행했다. 룸비니 현지 사정으로 보면 아침 8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이었다.

이 워크숍 시간은 우리 활동단의 일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통보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준비해 왔으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밤을 지새웠다.

뜬눈으로 맞은 아침, 네팔 교사들과의 교과 워크숍에서 우리들은 국제 활동에서 이론과 실재가 얼마나 큰 괴리를 가져오는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시간을 지켜 온 교사는 오직 한 사람, 약속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서 겨우 모인 네팔 선생님들은 아무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뿐 아니라 자외선 비즈는 안개가 많아 11시에나 해를 볼 수 있는 룸비니 기후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교재이며 무엇이나 괜찮다는 네팔 선생님들의 무관심을 핑계로 무작정 준비한 색팽이 교구도 색상교육이 없는 이곳에서 효과적인 학습내용으로 전달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전 처음 보는 교재 앞에서 당황해하는 네팔 선생님들을 보며 우리 활동단도 난감해하고 있었다. 과학수업을 알차게 하겠다고 결심한 꿈은



3. 150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거땀 부타 초등학교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단 1명이다.



4. 색팽이 교구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네팔 교사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다. 별 의욕도 없이 우리를 쳐다 보고 있는 네팔 선생님들의 모습도 우리를 힘 빠지게 했다.

생님들이야말로 ‘히말라야가 준 선물’ 같았다.

네팔 교사, 마을 지도자가 되다

그 뒤 우리 활동단은 툼비니 거땀 부타 학교를 2년 동안 연이어 방문했고 마지막 해에는 새벽까지 네팔 선생님들이 밤잠을 참으며 모두 나와서 우리의 도착을 기다려 주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학교를 방문하여 함께한 협력수업의 시간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이다. 3년 차가 되던 해에는 자신들 스스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간 약품으로 보건활동도 해주고 지역청소도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네팔 선생님들을 마을 지도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였다. 처음에 만났을 때의 소심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주변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는 학생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행동으로 변해 있었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와 처음으로 과학 워크숍을 실시하던 그때였다는 생각이 든다. 우왕좌왕하는 한국 선생님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한 그 순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단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때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8년째 네팔 교육자원 활동을 하면서 그때의 감동을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진정한 나눔과 연대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귀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㉔

스스로 손 내민 네팔 교사로부터 변화 시작

우리가 허둥거리는 것을 보고 있던 네팔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하더니 과학교과에 대한 워크숍을 해보자고 제안해왔다. 먼 곳에서 자기들을 생각하고 와 주었는데 자신들도 무언가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교육자원 활동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네팔 선생님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과학 워크숍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다. 네팔 선생님들이 우리들과 함께 직접 팽이 도형에 색을 칠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리며 새로운 색감의 세계에 즐거워했다. 너무도 열심히 배우고 실습해 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도착해서 느꼈던 좌절과 실망감을 우리는 남김없이 털어버릴 수 있었다.

안개 때문에 못 할 것 같았던 자외선 비즈 수업도 네팔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겠다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오후에 해가 나기를 기다려, 겨우 비치는 햇살을 찾아 비즈 수업을 했다.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끼운 구슬이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목에도 걸고, 손에도 걸고 갈갈거리며 비즈를 닦고 또 닦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네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비즈를 ‘햇빛이 주는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네팔 선

세계시민교육에서 바라본 다문화교육

세계화와 이주운동으로 인하여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차이와 다양성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교육적 접근 방안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시민교육은 대체로 개발정책과 관련된 교육, 즉 개발교육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평화교육과 환경교육,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주제영역도 역시 포괄하고 있다. 차이와 다양성의 증가는 여러 생활영역에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다문화교육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학교 인천한누리학교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교차점

오늘날 세계화·정보화·다문화라고 하는 거시적인 사회변동 과정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요청되는 시민의 모습은 일단 세계시민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방과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수준의 상호의존, 지방수준과 세계수준의 상호연결, 하나의 세계를 지향한 통합 등이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소통과 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다문화성이나 다문화주의의 기치 아래 문화상대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계몽주의적인 인류의 이상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편주의자들이 있다.

이러한 논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서 바라본 다문화교육의 위상에 초점을 맞출 때, 다문화·다양성 시대에 요청되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과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교차점 혹은 상호관계에 대해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교차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스주변·차별·권력관계를 분석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과정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각 문화의 다층성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른 민족과 국민을 단순히 객체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주체로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2.3.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를 포용한 서울이태원초등학교



해 비평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다른 것에 대한 지각과 타자에 대한 생각을 검토하고, 평등과 다양성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기 △다양성과 관련하여 교육의 내용을 재고·조절·개정하고, 필요한 교육과정 개정을 지향하며 작업하기 △학교 안팎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배제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러한 현상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기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 전체를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간주하기 △지방·국가·지역·국제사회의 수준에서 차이를 받아들이

고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규범적 가정에 입각한 이러한 목표와 과제는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잠재적인 교차점 혹은 공통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이 공통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다문화교육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도전 혹은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제 중의 하나는 문화적 소수집단을 포용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 사이에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문화교육은 문화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교류·접촉, 그리고 대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한다. 즉, 문화들 사이의 상호침투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특정한 문화적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각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적 시민성의 함양과 신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이 떠맡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교육과정 다중관점의 중요성

상기한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때, 다문화적인 교육환경에서 서로 다른 관점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반영한 다든지, 학교의 활동과 행사에서 지역사회의 다원성을 대표하는 소수집단의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도자,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을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 능력, 문화적 배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면서 그러한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적 인지와 능력의 일반적인 발달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편견과 갈등을



주제로 삼는 일이 중요하며, 또한 경직된 규범지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즉 규범적 유연성을 기르는 일도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중등학교에서는 차이·다양성에 관해서 더 복잡적이고 세분화된 사고와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이·다양성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중관점교육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편협한 국가정체성 또는 민족정체성에 대하여 타자 혹은 낯선 관점과 측면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체성의 확장이 요청되고 있다. 언어·역사·종교·국제관계·세계경제·과학기술에 대한 다중관점 혹은 다중시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과정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각 문화의 다층성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른 민족과 국민을 단순히 객체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주체로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의 다중관점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학습자가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역사와 문화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출신국 문화와 체재국 문화 사이의 단순한 병존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교육 차원에서는 사회체제 내에서 그리고 사회체제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된 사회, 다문화역량을 키우자

다문화교육은 국민국가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사회에서 적절하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를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결국 다문화교육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요청되는 세계시민교육, 세계화된 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기한 목표와 과제를 통해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은 다문화역량 혹은 다양성역량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문화교육의 결과로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다문화역량 혹은 다양성역량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교육 현장에서 실행할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요청된다. ㉞

역사로 배우는 평화와 연대 '우리는 하나'

중국, 베트남 등에서 건너온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가정 청소년이 한데 어우러져 떠난 역사기행. 임시정부 숨결을 따라 5박 6일간 이어진 긴 여정에서 서로를 다르게 보던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갔다. 중국 출신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상해를 지나 서안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베트남전에 출전한 한국군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준다. 역사 유적지에서 깨닫게 된 '우리'. '다름'에서 시작해 평화와 연대로 하나가 된 아이들에게 세계시민은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편집자 주)



이주배경 청소년과 함께 떠난 역사문화탐방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청소년 독립여행 프로젝트 1탄에서는 사전에 독립여행 구상에 세이를 받아 선발된 청소년 등 3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선주민+이주민)들이 100년 전 대한독립투쟁의 중심점이었던 임시정부와 광복군 및 독립운동의 역사적 유적지 등을 탐방하여, 통합적 '역사정의' 체험활동을 통해 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연대 의식을 함양하였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 동안 청소년 등 31명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숨결(이동경로)을 따라서 인천-상해-가흥-혜염-진강-남경-중경-서안 등 역사 문화탐방 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보고회 1부 사진 전시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숨결이 남아있는 장소를 담은 사진들을 선보였다. 사진 속에서는 생생한 역사적 발자취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

2부 청소년 독립여행 프로젝트 에세이 발표에서는 참가한 청소년 등 31명 모두가 참여하였다. 이날 의미를 더욱 되새길 수 있었던 건 이주배경 청소년이든 선주민 청소년이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분투하고 희생됐던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이었다.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토) 서울 홍사단 강당에서는 '새로운 백 년의 주인이 되자' 청소년 독립여행 프로젝트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을 맞아 이주배경 청소년과 선주민(한국가정) 청소년의 통합적 '역사정의'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독립여행 프로젝트 1탄 '새로운 백 년의 주인이 되자' 역사 탐방 결과물인 사진전과 에세이 발표대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성장 기록들을 공유했다.

“임시정부청사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앞에 위안부의 동상이 있었다. 그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옆에 준비해둔 손수건으로 동상의 눈물을 닦아 드렸다. 그러나 그 동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닦으면서 내 마음은 울컥했다. ... (중략) ... 청소년 독립여행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중랑중학교 김예문(이주배경 청소년) 에세이 中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가진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일본에게 원하는 것은 경산적인 피해를 보상하려는 많은 돈이 아니라 오직 진정성이 담긴 진심 어린 사과와 그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아직 더 많이 살아계실 때 그 사과를 듣는 날이 열린다면 좋겠다. ... (중략) ... 태어나서 애국가를 그렇게 열심히 (함께) 불러 본 것은 처음이었다. 애국가를 부르는 내내 내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고 (임시정부) 청사를 관리하시던 아저씨도 우리를 계속해서 기분 좋게 쳐다보셨다.”
 양곡고등학교 박재현(선주민 청소년) 에세이 中



1. 역사로 하나 된 독립여행 참가자들
2. 청소년 독립여행 프로젝트 1탄 성과보고회 사진전과 에세이 발표대회
3.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 가다 만난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친구가, 이웃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평화와 연대를 꿈꿨다.

3부 청소년 독립여행 동아리 출범식에서는 흥인화 공내중학교 학생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독립여행은 베트남으로 장소를 정하여 준비할 예정이며, 9월부터 10월까지 독서모임과 영화모임 등이 이루어지고 한국 역사 교과서와 베트남 역사 교과서를 통하여 공부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즈음에는 청소년 독립여행 프로젝트 2탄 '성찰평화기행-베트남' 여행이 있을 예정이다.

'역사정의' 통해 세계시민성 키우다

이번 청소년 독립여행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2019)을 맞아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주체적 성장을 돕는 역사문화탐방으로 다문화 시대, 이주배경 청소년과 선주민 청소년의 통합적 '역사정의' 공동체험 활동을 통한 청소년 세계시민성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윤혁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이주배경 아이들은 한데 어울리며 자존감을 회복했고, 선주민 청소년의 편견은 깨졌다.”며 “홍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는 이번 청소년 독립여행 프로젝트에 이어서 '청소년역사문화탐방 동아리'를 구축하고 후속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21세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홍사단 교육운동본부는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희망



의 교육'을 위하여 올바른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대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위한 연구 및 실천 활동으로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 개발과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와 '청소년(세계)시민학교', '청소년정책원탁대회', 영화를 통한 민주시민 가치덕목 '민주피아; 시민력 향상 프로젝트', '다문화 세계시민학교', '독서클럽-백년공부', '교육정책포럼', '마을교사종합학교' 등 청소년과 성인과 함께 배우는 '시민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황지민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우리의 행동은 지구마을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

국가, 인종, 빈부 등을 넘어서는 지구마을의 시민. 지속가능한 세계,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 곧 세계시민을 일컫는다. 지구마을 모든 이웃의 가치와 존엄성이 지켜지고, 그 마을 이슈에 대한 공감, 공동체에 대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 수업. 수원 효원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 그 수업현장에 다녀왔다.



1

“서로 떨어져 있으면(1모듬),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2모듬), 함께 모이면 우리는(3모듬), 바다가 된다. 마음을(4모듬), 하나로 모으고 옆의(5모듬), 친구를 배려해 보자.(6모듬)”

6교시가 시작되자마자, 6개 모듬의 암호문이 완성됐다. 황지민 교사는 아이들이 직접 쓴 암호문을 크게 두 번 낭독하게 했다. 이어서 황 교사는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물었다.

“배려요, 협동이예요, 공감이에요.”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세 개의 단어를 큰 목소리로 합창했다. 9월 3일, 수원에 있는 효원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 이날은 황지민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2학기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다. ‘모두 함께 해요!’ 황 교사가 소개한 이날의 학습 주제다.

회색고래는 어떻게 구출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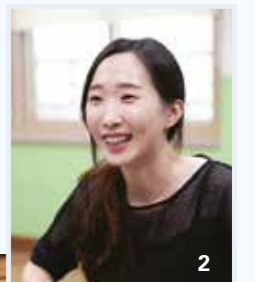
이날 수업은 5-6교시 2차시로 진행됐다. 황 교사는 아이들에게 먼저 2012년 상영됐던 영화 포스터 영상을 소개했다. <빅 미라클>이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고래예요. 그런데 포스터를 보면 얼음바다 사이에 난 구멍으로 고래가 물 밖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고래도 생명이니깐, 숨을 쉬어야 해요.”

얼음바다에 갇혀 숨을 쉴 수 없는 고래가 “불쌍하고 안쓰럽다.”면서 최지원 학생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영화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약과 소련 국적 쇄빙선의 도움을 받으며 고래들은 얼음 속에서 극적으로 구출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 <빅 미라클>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절정이던 1988년 실제 일어난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

포스터와 간략한 영상소개가 끝나고, 황 교사는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지를 돌렸다. 첫 번째 질문, “회색고래 가족은 어떻게 구출이 될 수 있었나요?” 이수안 학생은 이 질문에 “미국과 소련이 협동하여 얼음을 깬어요.”라고 명료하게 적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 “많은 사람들이 회색고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다운 학생은 이 물음에 일찌감치 “생명의 가치는 높으니까요.”라는 모범답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황 교사는



2

1. 수업의 중요 키워드 ‘생명’에 대해 토론하는 아이들
2.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마음의 그릇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르치고 싶다는 황지민 교사
3. 쌓기나무 던져 잡기 게임. 쌓기나무를 다른 모듬원에게 재빨리 던지고, 옆 친구가 던진 것은 내가 잡으면 되는 게임으로 배려와 협동을 배울 수 있다.



3



이 5교시 수업의 중요한 키워드, ‘생명’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는 긴 시간을 이어갔다.

계속되는 각 모듈별 미션. 황 교사는 학생들에게 암호 문자표를 나누어주었다. 글자의 초성, 중성, 종성을 뽑아내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미션이다. 친구들과 협동하여 답을 찾은 모듈은 매직펜으로 글자를 써서 칠판에 붙이면 미션은 완성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부여됐던 미션은 ‘쌓기나무 던져 잡기’ 게임이었다. 쌓기나무를 다른 모듈원에게 재빨리 던지

고, 옆 친구가 던진 것은 내가 잡으면 되는 게임이다. 모듈원 모두가 땅에 떨어트리지 않고 동시에 잡으면 미션은 성공. 그러나 성공하는 모듈은 쉬이 나오지 않았다. 이 또한 모듈원끼리의 배려와 협동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임이다. 황 교사가 수업의 주제인 ‘배려와 협동, 공감’을 학생들에게 재확인시켜주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 4. 6월 12일 세계아동 노동반대의 날 수업
- 5.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소중한 수업
- 6. 학생들과 함께한 월드비전 분쟁피해지역아동보호 캠페인

마음 그릇이 넓어지는 세계시민으로!

이곳 6학년 2반 아이들이 배우는 ‘세계시민이란 곧 국가, 인종, 빈부 등을 넘어서는 지구마을의 시민’이다. 황 교사는 이를 크게 공간, 그리고 영향력의 확장으로 쉽게 풀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곤 한다. 일례로 공간적 측면으로서는, 단지 6학년 2반이 아닌, ‘지구별, 아시아,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해시키는 식이다. 또한 매순간 자신의 행동이 지구마을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계시민교육 수업의 목표인 것이다.

황 교사가 이 교육을 교과수업에 처음 도입한 건 2015년 2학기부터다. 그해 8월,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세계시민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다. 이 연수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현직 교사가 먼저 지속가능한 세계, 지구마을 공동의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 강의와 워크숍, 학교 적용 사례 등을 운영·지원해 오고 있다.

“교직에 처음 몸담으면서 저 스스로와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에게는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마음의 그릇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자 하는 것이었죠.”

지구를 살리는 배려·협동·공감

지난 3년, 이 세계시민교육 수업으로 아이들의 지식과 사고의 확장, 태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황 교사는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는 중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일상



에서 감지되는 변화가 경이로울 정도란다. 학생들은 기후난민 수업을 들은 이후로는 교실의 에어컨 온도를 섭씨 24도 이하로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 또 탄소배출 수업 이후부터는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종이컵 사용을 금하고 있다.

지난 1학기 수업 중에서는 세계 물의 날 프로그램이 학생들로부터 특히 만족도가 높았었다. 이 수업에는 6학년 2반만이 아니라, 효원초교 전 학년이 참가해 급식실 앞에서 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또 세계아동 노동반대의 날 수업을 통해 박효원 학생은 “내가 신던 신발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신어야겠다.”고 ‘생각일기’에 그 소감을 적어놓았다.

“수업을 듣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되고 싶었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더니 후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발명가가 되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렇게 그 꿈들을 차례로 이룬 후에 초등학교 시절의 꿈이었던 유엔안보리 의장에도 도전해 보겠다고요. 또 커서 군인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현재 유엔평화유지군으로 그 꿈꾸기의 영토가 더 넓어졌고요.”

올해로 만 3년차를 넘기면서 황 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수업은 앞으로 좀 더 변화를 모색해나갈 예정이란다. 진로교육과의 융합·연계도 연구 중이다. 또 향후에는 이 수업에 참가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중단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②



세계시민교육 노하우

① **콘텐츠를 교육과정과 통합·연계시켜라**

지난 1학기, 세계시민교육 수업은 세계 물의 날(3월 22일), 지구의 날(4월 22일), 세계아동 노동 반대의 날(6월 12일),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 등 유엔에서 세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정한 날들에서 주로 선정했다. 주제어의 개념 등 이론부터 아이들의 활동까지 수업에 담으려면 대개 3차시까지 수업이 진행됐다. 세계아동 노동 반대의 날 수업은 수학의 비율 단원과 접목, 적용한 사례다. 또 세계 난민 관련 수업은 국어교과의 논설문 쓰기로 확장,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② **학교 밖으로도 수업공간을 확장시켜라**

수업이 끝나면 학생은 반드시 다른 한 사람에게 수업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다. 학생들도 그 누군가의 세계시민교육 교사가 되어보는 것이다. 효원초교 6학년 2반 아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 수업에서 배운 콘텐츠들을 학교 담장 밖으로도 적극 전파하고 있다. 또 지난 1학기의 기후난민 수업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공개수업으로 진행했다.

③ **현장연구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라**

인권과 평화, 환경과 빈곤문제 등 수업의 콘텐츠는 주로 학교 밖 현장에서 발굴하여 활용한다. 이번 수업의 토대가 된 월드비전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NGO 단체 연수, 전시회, 혹은 캠페인 현장을 직접 찾다니면서 보고, 기록한 자료들을 적극 수업에 활용한다. 교사가 직접 발로 뚫은 현장만큼 훌륭한 세계시민교육 수업지도안도 없다.

제3회 세계시민교육 페다고지와 실천을 위한 국제회의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 실현 모색



구성된 마음과 보편성의 문제

송나라 사람이 예식 때 쓰는 모자를 잔뜩 가지고 월나라에 팔러 갔다. 그러나 월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는 문신을 해서 모자가 필요 없었다.

- 『장자』, 「소요유」 中

송나라의 모자 장수가 월나라에서 모자를 단 한 개도 팔 수 없었다. 송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는 문신을 해서 굳이 모자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모자를 팔려는 것은 모자 장수의 앞지른 마음이고, 월나라 사람은 모자

가 필요 없었다. 그랬으니 월나라에 들어간 모자 장수는 허탕을 친 것이다. 송나라 모자 장수의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독해가 가능하다. 우선 자기가 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고, 그 다른 세상 속에서 다른 풍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송나라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모자를 팔아 큰돈을 벌겠다는 모자 장수의 어리석음을 문제 삼는 방식의 독해이다. 또 다른 독해는 모자 장수 자신이 구성한 마음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송나라 모자 장수는 월나라에 가서 자신이 옳다



고 믿었던 가치관이 송나라라는 특정 삶의 문맥에서 구성된 마음이고 이것이 다른 삶의 문맥에서는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행을 통해 예기치 못한 타자와 만나듯이 타자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세계시민교육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계기가 연속해서 펼쳐지는 공간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구성된 마음을 선입견으로 해서 낯선 지평과 만난다. 이 과정에서 선입견은 깨지면서 새로운 지평의 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일면성과 특수성이 수정되고 보편성을 향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과정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의 지역별 적용과 사례의 큰 흐름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는 올해로 3회차이다. 이 회의가 추구하는 방향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학적이고 실천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시민교육의 교육 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학교, 지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동시에 고민되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특히 올해 주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각색의 세계시민교육의 지역별 적용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세계시민교육이 지역적 맥락을 다소 소홀히 하면서, 보편적 범주와 개념을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치중해 왔다면, 올해 국제회의는 이를

보완하면서, 어떻게 보편을 지향하는 특수한 실천들이 지역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세계시민교육을 맥락화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의미는 좀 복합적이다. 예를 들면, 지역을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지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경우, 경기도, 서울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서로 다른 지방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역'의 의미를 하나의 국민국가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비교 단위는 필리핀, 대한민국, 베트남과 같은 국가가 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역에 접근하게 되면,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 경험이 있는 필리핀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 또 전쟁과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적용과 사례라는 국제회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지역을 단위로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시민교육 하니까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 생각하기 쉬운데,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세계시민교육, 평생학생의 흐름 속에서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세계시민교육, 지방정부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노력 등이 공유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원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개회식



시행사

주민들이 처음에는 학생에서 자체 연구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사례 등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선순환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인가?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2012년 유엔이 주창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을 통해 소개된 개념으로,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념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한 전지구화 현상은 세계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성과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국가(nation-state)의 경계를 넘어 유통되는 자본, 인력, 정보, 문화 등의 종류와 양이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단위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전 세계의 이민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 범죄, 질병, 전쟁 등 범지구적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은 직간접적으로 일상생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공동체 간의 상호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사회에 세계시민적 의식과 참여를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적실한 의제로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상이한 역사적 궤적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사회구성체의 기본 전제로 수용하고 있다고 해도 민족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던 ‘상상의 공동체’의 경계가 여전히 강력하다. 여기에 더해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 전체주의, 원리주의도 문제이지만, 한 국가 안에서 분리주의 역시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작동하는 민주시민을 넘어서서 시민성을 이중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이중 시민성은 한 국가 안에서 시민과 세계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일상적 활동 무대가 지구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인권, 범죄, 환경, 분쟁, 기아 등과 관련된 전 지구 차원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관망자’가 아니라 세계 공동체에 개입하고 활동하는 ‘참여자’로서의 세계시민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도전

이번 국제회의의 기간 내내 한편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지역화를 다른 한편에서는 보편적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다.

세계시민교육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권 평화 생태 등 보편적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위한 연대, 인간의 존엄성

을 구현하려는 노력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지역화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사례는 볼리비아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와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이었다. 부엔 비비르는 함께 더불어 좋은 삶이라는 의미로 볼리비아의 개정헌법에 추가된 조항이다. 특히 더불어 잘사는 좋은 삶이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과 더불어 좋은 삶이라는 부분까지 확장되면서,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헌법 조항으로 삽입되는 선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도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무엇보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의미가 국민을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의 행복까지 확장된 의미라는 사실은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사례는 지역화의 모범 사례이면서 동시에 보다 포용적(Inclusive)이고, 평화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 맥락화의 모범사례이다. 더군다나 폭력적 극단주의, 원리주의가 만연하고 빈곤, 기아, 청소년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미를 갖는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여전히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 공유되었다. 우선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교과서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도전이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에서 보편성과 지역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도 쉬운 주제는 아니다.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이미 교육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현과 전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토론, 현장과 연계된 배움, 지식교육을 넘어선 정서와 태도, 공감 교육의 중요성 등은 세계시민교육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분할된 교과로 나뉜 지식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어떠한 야 하는지도 도전이 되고 있다.

세계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지만 한국에는 그 나름의 독특한 이슈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평화이다. 한국에서는 평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한국의 맥락에 맞게 세계시민교육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말이 나라마다 이슈가 되는 것을 가르치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의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거주하면서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반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논쟁이 되는 이슈를 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대신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시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도입 부분에서 인용한 송나라 모자 장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다. 모자 장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타자와 만난다는 것은 이성적인 만남, 합리적 토론으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장자가 원하는 타자와 소통은 합리적 이성근거한 대화와 토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동의와 일치라 아니라 삶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와 타자를 고착된 자의식에 근거한 인식 대상으로 삼으며 공생하는 것은 결국은 파괴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타자를 삶의 짝으로 받아들여면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의 더 풍성해진 사례들이 모이는 내년 국제회의가 되길 기대한다. ⑤

충북 행복씨앗학교_ 성화초등학교 우리가 만드는 학교, “주인공은 나야 나”

행복씨앗학교는 학교 공동체가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여 따뜻한 품성을 가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 학교로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이다. 성화초등학교(교장 최길수)는 행복씨앗학교를 도입한 첫 해 지정되어 올해 4년차에 접어든 학교로 충북 혁신교육을 이끄는 대표주자이다. 성화초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의 학교를 소개한다.



1. 학교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최고의 학교!
2. 3. 스몰스쿨로 특색 있는 학년별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4. 최길수 교장선생님은 담임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리더이다.

스몰스쿨로 학년별 학습공동체 운영

2015년 행복씨앗학교로 선정된 성화초등학교는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47학급, 1,056명의 학생이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길수 교장은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스몰스쿨을 적극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담임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팀을 두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최 교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의 자율성이 늘어났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다보니 그 역량이 학습공동체나 연구역량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몰스쿨의 교사 구성은 오랫동안 성화초에서 근무하며 행복씨앗학교의 철학을 실천해온 교사 1~2명, 그 학년의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중입하는 1~2명, 새로 전입하는 교사 1~2명 등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인데, 학년분장은 공개적으로 포스트잇을 붙여 2주 동안의 기간을 두고 온전히 교사들의 희망과 자율적 조정으로 이루어져왔다. 스몰스쿨 시스템을 통해 행복씨앗학교의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학년별로 아이들의 삶과 연계하여 학생 중심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여건’,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들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계획한다. ‘청주, 성안길에서 길을 잃다’, ‘청주 문화유산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사회’, ‘우리 동네에는 두꺼비가 살고 있다’ 등 지역과 연계한 통합 수업이나 학생자치와 연계한 통합 수업은 스몰스쿨이 정착된 성화초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홍(연구부장) 교사는 “2-3년 전부터 학년별로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교육활동과 연결을 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논의를 이어나간 결과 특색 있는 학년별 교육과정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스몰스쿨 시스템 속에서 예산도 학년별로 자율성을 갖고 편성, 운영되고 있다.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도 돋보인다. 학년별로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등이 수시로 열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교육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한아름 학부모회장은 “생태·환경강사의 경험을 살려서 1년 동안 격주(2시간)로 아이들의 동아리활동 시간에 생태교육을 해왔다.”며 “구룡산 산책로에서 청설모와 노린재 등을 관찰하고 맹꽁이 소리도 들었다. 아이들과 도감을 찾아보며 함께 해온 생태교육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청주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놀이교육을 해오는 김은자, 최선영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로 전래놀이를 가르쳐주고 토요일이더도 열고 있으며, ‘해당화’라는 학부모 봉사단원으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벼농사와 화분 텃밭을 가꾸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최선영 학부모는



5.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현장 '교사학생대표 간담회' 6. 7. 프로젝트 수업이 제일 신난다는 6학년 학생회 대표 선거 토론회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함께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복희 학부모는 “수년째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도 성장한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행복씨앗학교를 통해 교육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중이다.

“우리학교 학생회를 소개합니다”

학교민주주의 실현은 행복씨앗학교의 핵심이며 혁신교육의 성공 열쇠이기도 하다. 성화초는 매달 50~60명의 교직원들이 다모임을 갖는다. 안전에 따라 모둠회의, 원형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의를 하며 학교의 중요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교장, 교감보다는 교사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저경력 교사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 인원이 많다보니 다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지지 못하지만 큰 틀을 합의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무엇보다도 학교민주주의의 꽃인 학생자치 활동이 돋보인다. 성화초의 학생회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학생자치가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작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성화초의 선거제도는 ‘팀-Mate제도’로 회장(6학년 1인), 부회장(6학년 1인, 5학년 2인)이 한 팀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이다.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선거출마부터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한 팀으로 움직

이기 때문에 학생회 운영이 수월하고 학생회의 권한도 크다.

기존의 학생회 선거제도에서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선거 공약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달라 학생회를 운영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심지어 학생회의 공약이 교사들의 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상근 교사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집행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학생자치 예산에 대한 권한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팀-Mate제도’이다.

6학년부에서는 학생회 선거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우리가 만드는 사회-3월, 민주주의 시작’을 주제로 한 달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9팀의 후보가 선거출마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져 3회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역사, 우리가 만드는 선거와 권리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민주주의가 교과서 속 뻘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로 들어온 것이다.

김희연(선거관리위원장) 학생은 “3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1차는 방송, 2차는 강당에서 후보 9팀과 투표권이 있는 4~6학년 전원이 참석했다. 여기서 선발된 최종 2팀이 마지막 3차 토론을 거친 결과 정찬서 팀이 당선되었다.”며 당시 학생회 대표 선거의 뜨거웠던 열기를 소개했다.

열띤 토론을 거치는 동안 후보들 간에 사이가 돈독해져 일부는 집행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팽이대회’ 공약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당선된 정찬서(학생회장) 학생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학생회에서 팽이대회를 열었는데, 대회 준비부터 진행까지 너무 힘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해 보람됐다.”고 말한다. 그밖에도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리본을 만들어 등교하는 아이들의 가방에 달아준 일, 학

교 앞 신호체계를 바꾸기 위해 친구들과 거리서명을 나섰던 일 등 학생이 주인공인 학생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체계가 불편하여 무단횡단 하는 아이들이 있어 위험해요.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신호체계를 바꿔 동시신호를 준다면 친구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리서명을 진행했어요.” 학생회는 최근 학교 앞 신호체

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과 주민 300여 명의 서명을 청주시에 전달, 지금은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학생회의 열정이 값진 열매로 돌아오길 기대해 본다. ②

‘행복씨앗학교 2.0’ 추진 총복형 미래교육모델 청사진 만든다

행복씨앗학교는 충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로, 학교공동체가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여 따뜻한 품성을 가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 학교를 일컫는다.



매년 10개교 내외의 행복씨앗학교를 지정하여 2018년 현재 42개교의 행복씨앗학교가 다채로운 빛깔로 학교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행복씨앗학교 1.0은 ‘단위학교 중심의 혁신교육’ 모델이라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행복씨앗학교 2.0은 ‘행복씨앗학교 질적 성장을 통한 학교혁신 일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2019학년도부터 4년간 추진할 행복씨앗학교 2.0 기본계획을 발표, 행복씨앗학교 연착륙을 위해 향후 4년간 행복씨앗학교를 매년 7개교 내외로 신규 지정해 모두 70개교로 확대해 나간다고 발표하였다.

혁신학교 모델 다원화에도 나선다. 각종 모델학교 사업에 행복씨앗학교 중점 추진과제를 연계하는 ‘행복동행학교’를 운영해 행복씨앗학교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학교혁신 일반화를 추진한다. 행복씨앗학교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학교민주주의 실현’으로 내년부터 학교당 평균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행복씨앗학교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명현 부교육감은 “이번에 마련한 행복씨앗학교 2.0 기본계획은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실현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총복형 미래교육모델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김영학 성호고등학교 교사 학교 혁신을 꿈꾸는 ‘현장교육 실험가’



그를 일컬어 누군가는 ‘현장교육 실험가’라고 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그를 알고 있거나 이야기를 나눠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학교 혁신을 꿈꾸며 그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밤낮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가히 ‘실험가’라 부를만하다. 김영학(47) 경기 오산 성호고등학교 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를 동료 교사들과 나누며 교육 현장에 긍정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벽화가 그려진 교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영학 교사
2. 대부분 모듈별 협동학습으로 이뤄지는 과학수업 시간

아무리 우겨 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성호고 1층 과학실 문을 열자 흥겨운 노랫소리가 기자를 반긴다. 폭우로 인해 30분 단축 수업이 진행된 이 날, 흐린 날씨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고2 ‘생명 과학 1’ 교과 시간. 혈액 간 수혈 관계를 배우기 전 「개똥벌레」 노래를 개사한 ‘혈액형송’이 웃음부터 자아난다. ‘A형 응집원 A형 응집소 베타(β)♪ O형은 응집원 없고요. 응집소 알파(α) 베타(β)♪’ 딱딱한 과학시간을 노래로 즐겁게 시작하며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를 보르는 이가 김영학 과학교사다.

“단원마다 활동에 필요한 개념을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한 단원을 마치고 모듈별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수행평가를 했는데 아이들이 즐거워하더군요. 그 이후로 쭉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에 “수업 먼저 보고 얘기 나누자.”고 권한 그는 누구에게나 교실 문을 활짝 열어 놓기로 유명하다. 교내 메신저를 통해 동료 선생님들을 자신의 수업에 초대하는 습관은 1995년 교단에 선 이후부터 20여 년이 넘도록 실천하고 있다.

“내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지요.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좋은 수업,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 교사는 수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디라도 적어 놓았다가 쉬는 시간 동안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분석해 수정하고, 다시 적용해 보길 20여 년. 그는 기나긴 그 과정이 마치 “임상실험 같다.”고 했다.

20여 년간 함께 써 온 ‘공동 수업일기’

“사람대가 아닌 교직 이수로 교단에 서게 됐어요. 내가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었고, 그간 내가 해온 수업들을 꼼꼼히 기록해 온라인에 올리기로 시작했죠. 자신의 수업을 끊임없이 내보이고, 평가받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교과 전문성 향상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지요.”

1999년 교단에 선 지 4년째 되던 해, 그는 ‘재미있는 과학수업 만들기(www.sedu21.com)’란 이름으로 누리집을 개설했다. 그리고 수업은 물론 학급운영을 비롯해 학교에서 무엇이 이뤄졌고,

함께 소통과 협력 재미있는 과학수업 만들기 과학 아낌없이 나누는 서로함께배우는 재미있는 과학

왜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를 위해 컴퓨터에 해당 파일을 항상 열어 놓고, 잇을 세라 쉬는 시간 10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모든 교수학습 자료를 촬영한 수업 동영상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자 점차 입소문을 타고 동료 교사들이 모여더니,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 5만여 명의 중등 과학교사 가운데 약 7,600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루 방문객 수만 1,000여 명. '이럴 땐 이런 말' '과학행사 아이디어' 등의 공유 공간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그래서 그는 '재미있는 과학수업 만들기'를 온라인상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쓰는 '공동 수업일기'라 부른다.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서 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태양계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한 활동을 공유했어요. 이 글에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점을 착안, 보름간 달을 관찰하는 과제를 수행평가로 했다는 경험담을 건네주셨지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차 확인한 것은 '수업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 '아이디어의 공유가 있을수록 더 좋은 수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학생 참여형 과학 강연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과 같은 과학 행사나 교내 생태지도 만들기, 인체 기관의 통합적 이해 등 장기 프로젝트 활동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공유의 힘에서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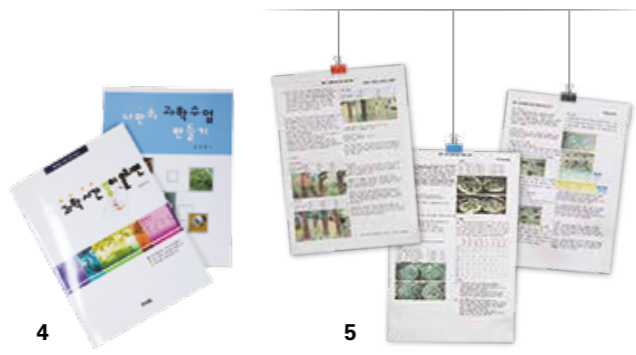


함께 하는 교육이 만드는 힘

'교육의 질은 교사 협업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그의 믿음이다. 그간의 과정을 담은 『과학시간 종이 올리면』(2002), 『나만의 과학수업 만들기』(2009)를 출간하고, 각종 수업혁신 연수 강사로만 200회 이상을 다닌 연유는 여기에 있다. 경기도과학교육원 연구원으로 근무 당시에는 '과학수업 아이디어, 함께 나뉘요' 행사를 3년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전국 600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2011년에는 한국 학교 현장에 적용한 탐구활동 사례를 NSTA(The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전미과학교사협회)에 발표하고, '동아시아 과학교육(Science Education in East Asia)' 저서의 공동저자로 한국 교사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교육적 효과를 전 세계에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2018년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했다.

"지자체 지원으로 7일 동안 핀란드 초·중등학교 10개교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방문한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꼭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이 왜 좋다고 생각하나요?' 공통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이나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줍니다.'였어요. 이는 교사 한 명의 열정과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잠자는 교실, 어떻게 깨울까', '교사상처 없는 행복한



- 3. 그가 아이들을 대할 때 철칙은 '비난하지 않기'와 '학생의 강점 칭찬해주기'이다.
- 4. 함께 만드는 수업 과정을 통해 집필한 저서들
- 5. 교실 복도를 따라 전시된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
- 6. 지난해 11월 '재미있는 과학수업 만들기' 현장실천 사례 나눔 세미나
- 7. 중미 코스타리카 열대우림 현장 연구에 참여한 김 교사
- 8. 그는 '마을과 함께 하는 과학 축제'를 10회 이상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학교 만들기'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해부터는 교내 과학교사들과 틈틈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용알이' 모임을 만들어 교사들과 교육 실천을 함께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명과학 교사로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경기도교원장기유학과정에 선발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원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교육부 주관 교사 국외연수 교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현지 연수 운영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그 이듬해 11월에는 중미 코스타리카 열대우림 현장 연구에 참여해 '일꾼 개미 행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탐구활동 자료로 제작해 과학탐구 수업에 적용했다.

'왜?'가 좋은 선생님... 실천연구를 꿈꾸다

"가장 좋아하는 말은 '왜?'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모르겠어요.'라는 말이 오하려 좋아요. 여기서부터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부끄러워하고 숨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사랑하지요(웃음)."

그가 아이들을 대할 때 철칙은 '비난하지 않기'와 '학생의 강점 칭찬해주기'이다. 자유롭게 아이들이 떠들도록 하는 것이 그만의 노하우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서다. 그의 수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만들

어간다. 시간기록계를 이용해 물체의 속력을 재는 활동을 해보다 대부분 학생이 종이테이프에 찍힌 타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자 아예 한 시간을 '돌돌이 실험장치 탐구'라는 주제로 시간기록계 기록 장치를 갖고 노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개념 이해를 위한 교과서 실험이 아니라 직접 탐구 주제를 정하고 "눈감고 줄넘기를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뛸까?"를 실험했다. 학교 화단의 생태지도를 그리거나 가상의 생물을 만들어 보는 과제에서 아이들은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교사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천연구'가 중요합니다. 교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과 작은 대안을 만들어 세상에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연구를 하는 교사들이 늘어날수록 교직은 전문가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 고민은 단위학교에서 교사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발성', '열정'을 중요시하는 그는 오욱환의 『교사 전문성』, 마이클 폴란의 『학교를 개선하는 교사』 두 권을 초임교사에게 꼭 권하고 싶다고 했다. 교사 스스로 열정적으로 연구하기를 바라는 선배 교사로서의 경험과 협동적 학교 문화 만들기에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리라' 기대하며 교육 협업의 임상실험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다. ㉠

경남수학문화관

“놀이가 수학이라고요?”

올 초 3월 14일 원주율 3.14를 의미하는 파이(π)의 날에 문을 연 경남수학문화관은 지난 5개월간 약 1만여 명의 학생, 학부모를 불러 모았다. 다녀간 학교 수만 200여 곳. 경남지역 초·중등학교 960개교 가운데 이미 1/5 이상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오가는 이곳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1



1. 수학어드벤처관 피비우스 정글짐
2. 경남수학문화관 전경
3. 체험탐구관 황금비 키재기

“우와~ 정글짐이다!”

그런데, 모양이 조금 독특하다. 평소 놀이터에서 오르내리던 정글짐과는 달리 곡선으로 이어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우선 올라타서 신나게 앞으로 나아가다 어느 순간 “앗!” 하고 소리친다.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신기한(?) 구조가 어리둥절한가 보다.

“여기는 피비우스 정글짐입니다. 안과 밖이 어디일까요? 경계가 없는 피비우스의 띠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수학해설사의 설명에 머리를 까우뚱하면서도 뭔가 재미난 놀이기구에 금세 신이 난 아이들. 이러저리 뛰어다니며 노는 곳곳에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었다. 사각바퀴 자전차가 매끄럽게 굴러가는 곡선, 대형 사각큐브, 아르키메데스 대형 나선 미끄럼틀 등등. 수학으로 떠나는 모험이 있는 곳, 경남수학문화관이다.

올해 초 ‘제1호’ 수학문화관으로 문 열다

경남수학문화관은 2015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수학 대중화를 위한 공간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6년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시·도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의 노원구청이 각각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서울 노원구청보다 먼저 개관하며 ‘제1호’란 타이틀을 얻은 경남수학문화관은 경남 창원중앙중학교 별관 리모델링을 통해 첫선을 보였다.

이경은 경남수학문화관 연구사는 “경남지역은 2015년 3월 양산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한 이후 김해, 진주, 밀양 등에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매년 3개 수학체험축전과 수학체험교실 등을 추진해 왔다.”며 “경남수학문화관은 누구나 언제든지 수학과 문화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교육 차원의 무료 수학체험 공간이자 연구기관”이라고 말한다.

2시간 놀면서 배우는 수학으로 흥미 UP!

평일 오전 9시 30분. 일찍부터 경남수학문화관을 찾은 아이들은 3층 수학상상실로 향했다. 1명의 체험수학해설사가 6~8명을 아이들을 맡아 안전교육부터 시설 안내까지 세심하게 챙긴다. 10명 이내 그룹으로 나뉘어 30~40분씩 2시간 영역별 체험 코스로 진행되는 학교체험 프로그램. A조 아이들은 먼저 스트링 아트 도전에 나섰다.

아이들 앞에 놓인 나무판과 판에 꼽힌 핀, 색색의 고무줄. 간단한 도구지만 일정한 규칙을 정해 색색의 고무줄을 연결하자 아름다운 곡선이 만들어진다. 대암초 6학년 정다운 양은 “직선만을 이용해 여러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게 신기하다. 수학 원리로 만든 예술 작품이 아름답다.”고 했다. 평소 수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반 친구 수인아도 “재미있다 보면 수학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며 웃는다.

수학에 대해 급(?) 호감을 갖게 된 아이들은 수학어드벤처관으로 향했다. 나선형 미끄럼틀 등 10종의 놀이기구를 보자 ‘환호’부터 지르는 아이들. 직선을 이용해 휘어진 면을 만들어 내는 쌍곡선 터널을 통과하는가 하면 사각 바퀴의 자전거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현수선 곡선 위도 힘차게 달려본다.

미끄럼틀을 타면서 아르키메데스의 ‘로그 나선’ 원리를 전부 이해하진 못해도 노는 중간 “이건 뭐예요?”라는 물어보는 아이들 옆에는 체험수학해설사의 친절 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즐겁게 논 아이들이 또다시 이동한 곳은 수학체험탐구관.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이야기로 복도 전시물을 지나온 아이들은 다양한 수학 이야기와 만난다. 세계의 수학사와 이웃 나라의 수학놀이, 수학퍼즐 등등. 이곳에서는 교실 4개 공간 크기에 총 62종의 콘텐츠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아이들과 만난 건 인류 최초의 직선 터널 사모스섬 터널을 재현한 모형이다.

“2600여 년 전, 정과 땅치 외에 마땅한 측량 장비도 없이 섬 가운데를 똑바로 가로지르는 직선 터널을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요?”

체험수학해설사의 질문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산허리를 돌면서 직각으로 거리를 재고 터널을 빗변으로 하는 직삼각형을 만들어 방향을 잡는 ‘직각삼각형 답음’이란 원리가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왔다.

임진왜란 중 일어난 해전 가운데 첫 번째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삼각비를 이용 해적의 배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했다는 원리도 배워간다. 대암초 5학년 강현 군은 “수학은 문제 풀이라고 생각 했는데 놀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빗면에 공을 떨어뜨리면 거리가 가장 짧은 직선이 아니라 사이클로이드 곡선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실험이 무척 신기했다.”라고 했다.

놀이 중심의 ‘한국형 모델’로 독창적 개발

“독일 기센의 수학박물관, 미국 뉴욕의 수학박물관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초 학문으로 수학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점차로 수학체험관 건립이

- 4.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수학 원리를 설명하는 체험수학해설사
- 5. 사각바퀴 자전거가 매끄럽게 굴러가는 현수선 도로
- 6. 최소 공배수 원리를 배우는 톱니 바퀴



- 7. 수학상상실 스트링 아트 수학체험
- 8. 10명 내외의 그룹별 체험이 이뤄지는 학교체험 프로그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놀이 중심으로 ‘한국형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수학어드벤처관은 현장의 수학교사와 수학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독창적으로 개발한 콘텐츠지요.”

이경은 연구사의 말이다.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수학어드벤처관과 수학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수학상상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학탐구체험학습관 외에도 △수학 도서, 수학 전시물, 보드게임을 비치한 휴식공간인 수북(數book)카페 △로봇, 프로그래밍 보드게임 등을 체험하는 SW교육 체험실 △수학 포기자 학생을 돕는 상담실인 수학클리닉실 등 경남수학문화관은 크게 6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초4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학교체험 수학프로그램, SW교육체험프로그램, 소규모 학교 중심의 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이 학교 단위로 운영되며 학부모 대상 수학문화 아카데미, 가족 단위의 주말 수학/SW데이 외에도 교사 연수, 방학 중 체험수학캠프 등 10개에 이른다. 대상에 따라 맞춤형 수학 처방과 지원이 이뤄지자 1년간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됐을 정도. 지난 방학에는 수포자 아이들을 위한 ‘수학 원정대’를 꾸려 지역 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생활 속 수학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

무엇보다 평일 오후와 주말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자유관람 시간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28명의 체험수학해설사가 체험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돕고, 초4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험수학해설사는 30시간 사전 연수를 통해 모든 프로그램을 꿰뚫고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94%를 넘어섰다.

김도희 대암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수학으로 놀 수 있는 체험공간이 좋았다.”며 “곳곳을 둘러 보며 수업시간 참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 등도 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이경은 연구사는 “앞으로 한국의 수학사 전시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너무 수학만 느껴지지 않는, 수학을 생활 속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중”이라며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아이마다 다르다. 수학문화관의 데이터를 축적해 단위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발생하는 개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㉞



울진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우리 동네 행복 전도사

경북 울진군 자율형 공립고인 울진고등학교는 학생 동아리가 활발하기로 유명하다. 정규·자율 동아리가 60여 개나 되고 2017학년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동아리 활동 우수교로도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 동아리가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새벽을 여는 도시락 배달

매주 수요일 새벽 다섯 시,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이라면 잠자는 시간 10분도 아까울 그 시간.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지역 자원봉사자가 만든 도시락을 하나씩 정성 들여 포장한다. 사랑의 도시락 봉사동아리 학생들이다. 포장 작업이 끝나면 도시락을 자원봉사자의 차에 각각 나눠 싣고, 울진군 관내 각 지역으로 배달을 시작한다.

사실, 울진군 관내 각 지역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울진군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70km가량 길쭉한 행정구역이면서 동쪽으로는 동해안 어촌이, 서쪽으로는 금강송 소나무가 우거진 태백산맥 줄기에 산골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산길을 오르거나 비 포장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배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아이고,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우짤 일이고…”

도시락을 받는 마을 어르신들은 이른 새벽부터 학생들이 배달하는 도시락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짝한 마음도 든다고 한다. 주로 도시락을 받는 이들은 울진 지역의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의 자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취약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도시락 동아리는 한 끼 식사뿐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함께 배달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새벽 도시락 배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춘 적이 없다. 이런 활발한 활동 덕분에 올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봉사활동 우수동아리로 선발이 되어 상금 80만 원을 받았는데, 상금 전액으로 라면과 김을 사서 도시락과 함께 배달해 주변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1학년 남학생이 처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 교복을 입고

왔어요. 새벽에 활동하니 바로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산에 오르기도 하고, 숲길이나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교복이 엉망이 되기도 해서 따로 가방에 넣어 와요. 결국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엉망인 교복을 입고 있었죠.”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배달이 밀려 지각을 하곤 해요. 비록 지각은 했지만, 새벽 시간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했죠.”

사랑의 도시락 동아리 학생들의 말이다. 학생들은 봉사를 통한 만족과 행복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누나가 하던 도시락 배달을 이어서 하고 있는 동아리 회장 전지용 군(2학년)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타인을 위해 새벽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배달을 이어가고 싶고, 후원이 커져서 더 풍성한 배달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당차고도 선한 아이들의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나눔이란 어쩌면 우리에게 내 것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더 큰 선물을 안겨주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를 위한 세상을!

매주 수요일 5교시 마침과 동시에 ‘아이들은 즐겁다’ 동아리는 울진군아동센터로 한걸음에 달려간다. 그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즐겁다’는 울진 관내 아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동아리다. 주로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울진군아동센터나 인근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교육봉사 동아리들이 그렇듯이 아이들과 만들기 활동이나, 동화책 읽어주기, 학습 도움 등의 활동을 주로 하지만 ‘아이들은 즐겁다’ 동아리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더 있다.

이 동아리는 매달 정기적으로 울진군에서 열리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과일과 동물 그림이 그려진 팔찌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매년 5월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에는 실종 아동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뜻으로 리본 달기 캠페인을 교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펼친다. 현재는 아동인권 배지를 제작 중인데 SNS에서 홍보와 판매

를 한 후 아동인권협회나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계획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울진 읍내에서 대규모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듯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동아리원 모두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봉사하기 때문인지, 인터뷰하는 학생들은 모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봉사활동을 갔던 곳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해진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린이집 봉사활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요.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다리에 매달리면 난처하면서도 뿌듯하죠.”

“센터에서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블록만 만지던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가 끈질기게 같이 놀자고 격려했는데 다른 아이들과 친해져서 밝아진 모습이 기억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동아리가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고 더 행복해지리라 기대해 본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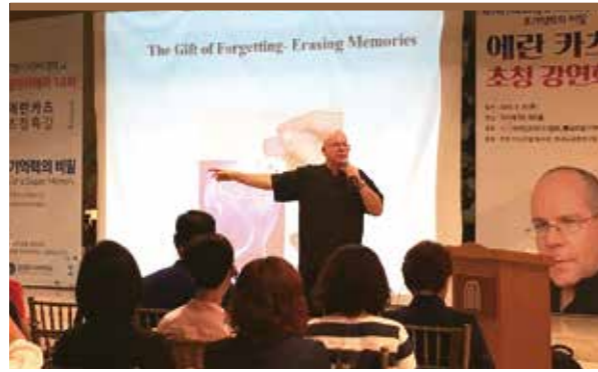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한가위를 맞아 대전원신흥유치원(원장 장영순) 아이들이 예절교육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절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전재용 센터장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에게 방식에 바르게 앉는 방법을 비롯해 절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손과 팔꿈치가 나란히 되도록 어깨높이로 들고 오른손이 왼손등 위로 가도록 포갠다.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두 손을 포개고 앉는 것은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 혹여 엉덩방아를 찧을까 조심하며 전 센터장을 따라 절하는 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 글_ 이다빈 명예기자

세계적인 기억력 천재 에란 카츠 초청특강 슈퍼 기억력의 비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억력은 얼마나 될까? 살아가다 보면 특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질문이다. 여기 세계적으로 기억력 천재라고 알려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스라엘 작가 에란 카츠다. 에란 카츠는 500자리의 숫자를 바로 듣고 기억해내 기억력 부문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직접 쓴 저서 『슈퍼 기억력의 비밀』, 『천재가 된 제롬』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서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다. 지난 8월 30일 목요일 한국을 방문한 에란 카츠의 기억력 특강이 있었다.

특강이 시작되자 에란 카츠는 화이트보드에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부른 20자리 숫자를 적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서대로 기억해냈다. 심지어는 순서를 거꾸로도 기억해냈다. 그가 이렇게 바로 기억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에란 카츠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말한 기억을 잘하기 위해 중요한 3가지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집중해야 한다. 그는 참가자들에게만 원권 지폐에 있는 그림에 대해 질문했다. 예상외로 지폐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대해서 답하는 참가자들은 적었다. 그는 매일 접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억할 것들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해 무언가 기억하고 싶다면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세종대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세종대왕에게의 관심이 이순신 장군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북선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면 점차 기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를 떠올리면 다른 하나를 이어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그는 늘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는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계이다. 이런 세계에 살아가면서 그는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 같은 이 3가지 방법이 기억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가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한계지어 규정하기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필요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의 뇌가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태도. 나의 뇌가 기억하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 에란 카츠의 말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말고 믿어주는 게 어떨까? 어쩌면 그게 바로 슈퍼 기억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 글_ 박경은 명예기자

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작은 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 간 상생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한적 공동학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역은 14개 지역이다.

제한적 공동학구제 지정 방법은 작은 학교와 인근 큰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는 진학할 수 없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의 현안인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동·읍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입·진학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점차 확대한다고 한다.

이로써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뿐만 아니라, 과대 학교와 수용시설 부족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배치의 불균형이 해소되리라 본다.

2017년 3월 5일 기준 작은 학교 비율이 41%에 이르는 전남지역의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으로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는 등 전남교육의 발전을 기원한다.



“ 글_ 김말선 명예기자

시원한 시민기관사 체험, 탁월한 선택!

매년 1회 실시하는 시민기관사 체험행사가 지난 8월 9일 진행되었다. 시민들에게 도시철도 이용 안전의식 함양 및 기관사업무를 이해하는 목적이 있다. 이번 시민기관사 체험행사는 전동차 입·출고 방법 및 모의 운전 연습기를 통한 운전 연습과 전동차 운전실에 승차, 기관사 체험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도시철도 이용 시 위급상황 대처 안전교육(육성안내방송, 소화기사용법, 비상 인터폰사용법, 출입문 수동 개방) 및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은 전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참가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도시철도를 운행하기 전 모의 운행 연습에서 운전 기초원리 및 도시철도 안전이용 준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도시철도의 직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직업체험으로 통쾌하고 유쾌한 코스다. 행사에 참여한 낙동중 한 학생은 “운행하는 동안 기관사의 인내력과 집중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만족해했다.



“ 글_ 김민중 명예기자

대구시교육청, 독서인문교육 교원 연수 눈길

대구시교육청은 8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1박 2일간 경주 보문단지 내에 위치한 교원드림센터에서 '2018 독서인문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교육청 소속 독서인문교육지원단 및 초·중등 인문학연구회 및 동아리 지도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연수 진행을 대구행복한미래재단에 위탁하여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연수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연수는 인문학자로 유명한 가톨릭대학교 김경집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되었다. '청소년의 미래 설계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김 교수는 “정답이 없는 미래의 교육에서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기반한 독서와 글쓰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로 연수는 분야별 심층 연수로 진행하였다. 책읽기와 책쓰기, 토론의 3개 영역으로 나뉘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강의, 토의, 실습 등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연수가 되었다.



“ 글. **곽우은** 명예기자

무지개빛 꿈을 키우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수가 현재 20만 명에서 2020년에는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교육과 더불어 사회통합 실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충북 제천에 자리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교장 권대주)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취업 능력을 높이는 대안교육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기술계 대안학교로, 선생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꿈과 열정이 영글어 가고 있다. 2012년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총 16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와 등 3개과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 베트남, 일본에서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에 이르기까지 총 13개국 131명의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이 재학 중이다.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국가기술자격을 100% 취득하고 있고, 학교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전액 국가 지원으로 면제가 된다. 졸업생들은 다인정공, (주)폴리텍, 아리제약 등 우수 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진학도 Cascade College(미국 시애틀), 부산외대 등에 입학하는 등 80% 이상의 학생들이 맞춤형 취업과 진학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학교 운영, 독도의용수비대 협력학교 및 온드림스쿨 인성교육(현대차 정몽구 재단), 마음키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다문화 청소년을 육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매우 뜨겁다.

가정이 어렵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삼성 꿈장학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학생들의 꿈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삼성 꿈장학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민우 학생(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은 “전기 기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호주에 가서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래서 영어회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가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과 신설도 준비 중이며, 삼성스마트스쿨 선정, 원격수업 추진 등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타 사·도 등에 다문화 자녀의 직업교육과 진로·진학지도 사례를 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의 모든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꿈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1. 문화다양성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2. 기술직업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스마트전기와 학생들

“ 글. **조선영** 명예기자

새롬중 사회선생님의 특별한 수업

세종 새롬중학교(교장 손경준) 조명준 사회선생님의 특별한 수업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올해 3월부터 자유학기가 시작되는 8월까지 그의 수업에는 남다른 고민과 열정,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보인다. 조명준 선생님의 수업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대동여지도 만들기!



우리가 거리에서 쉽게 접하는 지도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지도는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상당히 정교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지금의 지도는 자연스럽게 익숙한 데 반해, 고지도는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고지도 학습은 지도가 정교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과거 조상들이 공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화면으로 접하는 고지도는 여전히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동여지도의 크기는 가로 약 4m, 세로 약 7m에 이릅니다. 과거 지도에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대동여지도와 같이 큰 지도를 만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대동여지도를 실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의 실물에 가깝게 분권화된 지도책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직접 한반도 지도를 완성해 보는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22첩을 연결하여 대동여지도를 완성하는 학생들의 눈은 호기심이 어렸고, 태도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가 이렇게나 큰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대동여지도에 담겨 있는 산맥과 수계, 도로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지도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보면서 고지도에 한걸음 다가갔습니다.

자연재해 뉴스 영상 제작하기!

사회 교과와 자연재해 단원은 단순히 자연재해의 의미와 종류, 발생 원인과 발생 지역 같은 사실 위주의 내용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접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적합한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뉴스 영상 제작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와 대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촬영 및 편집 담당 학생과 기자, 아나운서 등 출연 담당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완성된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면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시청자)의 관점에서 내가 만든 영상 작품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기 말 사회 수업에 대한 의견 나눔 시간에 학생들은 자연재해 뉴스 영상 제작하기 수업은 수업의 재미와 협력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업이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 글_ 유호석 명예기자

행복한 교원 숲 속 힐링캠프

지난 8월 1일에서 3일까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숲치원에서는 교원의 치유 지원을 위한 힐링 캠프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및 피로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의 초·중고 교원 45명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번 캠프는 심적 치유가 필요한 교원에게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

숲 오감체험, 숲속 트래킹, 숲속 명상, 마음 나누기 활동, 편백 향기 주머니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2박 3일간의 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원들에게 마음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사 상담이나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충청남도 교원들의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차기를 기대해 본다.



“ 글_ 강호섭 명예기자

가상현실(AR), AI 스피커 활용 수업 눈길

경기 성남 늘푸른중학교(교장 노복순)는 8월 17일 네이버와의 교육협력 협약식을 맺고 각종 IT지원 등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아름다운 커뮤니티' 조성 교육협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네이버와의 협약을 통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IT교육, 강사 지원을 통한 코딩교육,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육관 겸 강당 시설 지원을 받게 된다.

AI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으며,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각종 IT 관련 지원을 받게 되어,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데 더욱 힘쓰고 있다. AI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모둠활동을 하고, 자료를 찾으니 수업이 지루할 틈이 없다."면서, "매일 매일 수업이 기다려진다.", "모든 과목을 이렇게 샐리(AI 스피커 이름)와 함께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특히, 네이버 측은 "AI 스피커 활용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보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노복순 교장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은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 마을 교육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



2022학년도 달라지는 대입과 고교 교육혁신



2022

- ①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 ②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교육혁신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현 중3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하라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과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절차적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단이 함께 속의 공론하고 국민의 뜻을 대표하여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대입,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 2015 교육과정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대입 등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능, 문·이과 구분 없앤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국어·수학·직업탐



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교육부는 당초 '사회1+과학1'의 교차선택을 검토하였으나 △ 인문사회계열 진학 희망 학생의 수험부담 가중, △ 특정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할 가능성, △ 수능에 유리한 특정과목으로의 쏠림 등을 우려하는 교육청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탐구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II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그 외 과목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공정한 첫 걸음!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으로, 학생의 부담은 줄어 들고 선택권은 확대됩니다!

~2021학년도	→	2022학년도~
대학 자율 (2020학년도 기준 4년제 일반대 수능위주비율 19.9%)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으로 확대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언어	국어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가형(이과) 수학 I,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이과) 수학 I, 수학 II, 확률과통계	수능 출제 범위 수학	(공통) 수학 I, 수학 II (선택)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사회, 과학 계열 구분, 계열내 택2 •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탐구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택2 • 일반계 : 17과목(사회9, 과학8) 중 택2 • 직업계 : 공통1과목+선택1과목(5과목 중 택1)
상대평가 :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 영어, 한국사	수능 평가방법	상대평가 : 국어, 수학, 탐구 절대평가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70%	EBS 연계율	50%
대학 자율 (2020학년도 기준 12개교/4,790명 모집)	적성고사	폐지
대학 자율	교사 추천서	폐지
대학별 고교유형별 합격자 수 공시	선발결과 정보공시	대학별 대입전형별 고교유형·지역별 합격자 수 공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 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암기 등 부

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학생부기재 방식이 개선된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 구축한다

먼저, '인적사항'은 '학적사항'과 통합하고 학부모의 정보는 삭제한다. 과도한 경쟁을 불러왔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생기부에 기재하되 대학입시에는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자율동아리는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되, 학생부에는 학년당 1개의 자율동아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동아리명과 동아리에 대한 소개만을 기재도록 했다. 소논문(R&E)은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 기재하지 않는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현행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학생부는 비교과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으며,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기재하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기재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에 대한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기록한다.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학교 간, 교사 간의 기재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부 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자녀 재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 관리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 매뉴얼'을 제공한다. 자기소개서의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합격한 뒤에라도 입학을 취소토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된다.

학생,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하여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면접 시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하며, 그동안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하여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㉞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들을 정비합니다.

학생부 기재 학생부 기재(일부 제한)

수상경력

*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6개)

소논문 (R&E) 자율동아리

* 학기당 1개로 기재 개수 제한(3개)
(동아리명과 간단한 동아리 설명)

자격증 및 인증취득

* 대입 활용자료로 미제공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학생부 기재 학생부 기재

청소년단체명만!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제한

방과후학교 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개별적 특성 중으로 간소화

봉사활동 실적

* 특기사항은 삭제

또한, 학생부 기재 부담을 줄이고
교사 간 기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4,000자 → 2,200자로 축소되며
각 항목별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

항목	현행				계	개선안				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창체특기사항	1,000	500	500	1,000	4,000	500	500	x	700	2,200
행특종합의견	1,000					500				

교원·교사 등을 위한
맞춤형 연수 강화와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를
확대·보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또는 금지 사항 기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부 기재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합니다.

공정한 평가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고
성적조작·시험지유출 관계자 등은
엄중 조치합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교육혁신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 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교육혁신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고교 교육혁신의 핵심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도입

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 중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 : ~20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연구·선도학교(18~105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19년 고교 1학년년부터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의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 : 2022년~20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3단계 :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고,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경쟁 중심 패러다임 전환, 고교체제 개편

또한, 경쟁 중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선훈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 :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여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후기전형 실시(18.12) →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는 201(≈19.1.4) → 일반고 통합 배정(19.1)

[2단계 : 2018~2020년] 단계적 전환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표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 : 2020년~] 고교체제 개편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편방안을 마련(20.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1단계 ~2021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
-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2019년 고1~)
- ※ 원점수, 과목평균 및 성취도별 학생 분포비율 함께 제공

2단계 2022~2024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2022학년도 고1부터 적용)
- ※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 설정
- 지속적인 상황점검을 통한 개선·보완 사항 발굴

3단계 2025~ 학점제 본격시행

-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전면 개정 고시(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
- ※ (선택) 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 모든 과목 성취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

고교체제 개편

경쟁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1단계 2017~2019 고입제도 개선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후기전형으로 동시에 고입 실시

2단계 2018~2020 단계적 전환

- 성과평가+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평가 표준' 마련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 실시

3단계 2020~ 고교체제 개편

- 다양한 결과를 종합하여 개편 방안 마련 (2020. 하반기)
- 충분한 의견수렴·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 확정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과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최전선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와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제 학교나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을 벗어나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한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 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간의 대처 방식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04년 1월 국회에서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부터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학교폭력 대책이 거의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이 정책숙려제의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정책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

력을 경험하는 피해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차 실태조사의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정상적인 교우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 프로그램 및 조치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관여를 통해 피해학생을 위한 두터운 보호체계를 형성하고 가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상담교사 등)의 확충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학교폭력이라는 문제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 위한 법적 근거로 생각한다. 특히, 학교폭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사후처리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의 교육적 개입보다는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마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결정에 대해 다투는 공간으로 학교를 변질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원의 비전문성과 그 결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에 따라 파생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향후 소송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판단 대상이 됨에 따라 생기는 업무의 폭증 현상 등으로 인해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예방적 접근 필요

학교는 학생들이 동료학생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과 학습의 장이다. 이런 학교가 어느 순간부터 불신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매몰되고 과다한 민원으로 인해 소진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훼손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그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다. 외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경범죄나 즉결심판 대상 범죄 즉, 매우 경미한 범죄 사건

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모든 수준의 학교폭력을 다 공식적인 절차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존재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교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관련 학생 간 화해가 이루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교우관계가 회복되어 학교폭력이 재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사후처리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발생한 학교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가해자, 조력자 등 관계되는 학생들 모두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저연령 학생의 경우 이러한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학창시절 동안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도 최근 교육부의 어울림 프로그램, 법무부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관련 부처들이 확산시키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교사들 역시 학급운영 과정에서 교우관계나 학생들의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학교문화 형성과 교육과정 편성 시에 이러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강조되고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학교 구성원 간 수평적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확대된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아이
우리아이
10화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담쟁이 잎들이 손잡고 DMZ 벽을 넘다 DMZ 평화관광·교육 위해 판문점 및 DMZ 답사



앞으로는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DMZ 평화체험과 평화축제 등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4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국 시도교육감(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함께한 파주 판문점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 관광·교육 현장을 답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를 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와서 평화를 실감하고 관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남북 간의 훈풍, DMZ 평화의 상징으로

오랜 남북 간 갈등관계로 인해서 DMZ는 그동안 참혹한 전쟁, 서로를 향한 불신,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상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DMZ와 관련한 관광과 통일교육 또한 ‘안보’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 왔다. 하지만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이때 정부는 지난 7월경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 본연의 평화적 기

오랜 시간 남북을 물리적·심리적으로 갈라놓았던 장벽인 DMZ에 평화의 이미지를 심고 이와 관련된 관광·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능을 복원하고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유일의 평화관광지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오는 22년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 일대를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둘레길, 자전거길 등 다양한 평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첫발로 시도교육감 초청 행사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날 교육부, 문체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평화의 집을 포함한 판문점 일대와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캠프 그리브스’를 둘러보았다. ‘캠프 그리브스’는 DMZ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다가 한국에 반환됐으며, 2013년부터 경기관광공사에서 DMZ 관광, 병영체험, 안보교육, 문화예술 공간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촬영된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 남북 사이에 훈풍이 불면서 캠프 그리브스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에는 이듬해에 비해 35% 증가한 2만 3,600여 명이 이곳을 찾았으며, 올 상반기에만 1만 864명이 캠프 그리브스를 다녀갔다.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

이날 김상곤 부총리 및 도종환 장관, 시도교육감들은 캠프 그리브스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에 참여한 기타리스트 양태환 군의 공연을 시작으로 DMZ 지역을 탐방 중인 청소년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평화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는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DMZ 평화 체험을 비롯하여 평화 축제 등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을 발굴·지원할 것이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화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적극적 평화교육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오늘의 모임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깝게 다가왔던 DMZ라는 벽을 타넘기 위한 담쟁이들의 첫 번째 모임”이라며, “이번 만남이 그동안 DMZ 지역에 입혀져 왔던 안보와 대결의 이미지를 대신해 평화의 이미지를 심고, 이와 관련된 평화 관광·평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승환 교육감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 공동체에게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DMZ’를 알려, 평화와 화해, 상생의 가치를 삶으로 체화하도록 현장체험 교육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랜 시간 남북을 물리적·심리적으로 갈라놓았던 장벽인 DMZ에 평화의 이미지를 심고 이와 관련된 관광·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의 뜻 깊은 시간이었다. ㉔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17일간의 대장정



시베리아 횡단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120명, 교직원과 인솔팀 등 총 1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러시아, 몽골 지역을 탐방하는 16박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독서토론열차학교는 전남 학생들이 △독서·토론 심화활동을 통해 창조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단체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마련됐다.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할 전남 인재의 나라사랑 및 통일의식 고취 △I-Brand 책 쓰기를 통한 다중지능 탐색과 개발로 자신의 가치 창출 △항일 독립운동지 및 유라시아 대장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 정립 등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여정이었다.

출정, 우리 역사 되새기고 조국을 생각하는 기회

지난 7월 25일 출정식을 마친 학생들은 학부모와 교육청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도교육청을 출발, 인천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단동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학생들은 8명씩 15개 반으로 나뉘어 반별 지도교사와 함께 독서토론, I-brand 책 쓰기,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명사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로드맵 짜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열차학교 홍우진 학생회장은 “작년 준비 기간부터 4차에 걸친 사전캠프까지 독서·토론한 내용은 인문적 소양을 쌓고 역사 의식과 조국애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대한민국 대표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열차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해주, 통일의 꽃으로 피어날 것을 염원

항일독립운동과 고려인의 역사가 숨 쉬는 연해주 구간에서는 사흘간에 걸쳐 ‘한민족 공동체의 길’을 주제로 크라스키노-라즈돌노예역-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톡 역사유적을 차례로 탐방하며 참배와 헌화, 유적보존활동, 추모 퍼포먼스, 다짐발표,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활동들을 펼쳤다.

안중근 단지동맹비를 찾아 항일의 결의를 다진 의사들을 추모하며 신독립군가 플래시몹을 연출했다. 또 학생들은 기념비 주변에 연해주 자생 야생화 200여 그루를 심고, 단지의 피가 거름이 되어 장차 통일의 꽃으로 피어날 것을 염원했다.

러시아, 문학의 진수를 체험



8월 4일 오후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학생들은 러시아 소수민족 및 현지 시민들과 문화교류활동을 전개하는 등 왕성한 대장정 활동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무대가 되었던 ‘12월 혁명가(데카브리스트)기념관’을 찾아 러시아 문학의 진수를 체험했다.

또 학생들은 알렉산더 3세 광장에 모여 러시아 소수민족들과 문화교류 시간을 가졌다. 코자크 병사들의 춤 등 소수민족들의 이채로운 민속 공연에 학생들은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 열차학교 남지현(목포정명여고 1학년), 조미주(광양여고 1학년) 학생이 선보인 민요를 시작으로, 플룻과 리코더 연주, 태권무, K-Pop 퍼포먼스로 이어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몽골, 사막화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8월 7일 몽골에 도착한 학생들은 점차 사막지대로 황폐화되고 있는 가초르트 초원지대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에 나섰다. 몽골의 건조한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차차르간(비타민나무) 수종을 선택해 지구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 ‘사막화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표시석을 세우며 지구촌의 한 식구로서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7월 25일 중국 단동에서 시작해 북-중 국경종단, 시베리아횡단, 몽골종단으로 이어진 17일간의 대장정은 학생들에게 조국과 약자를 위한 삶,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일깨우며, 몽골 테를지 게르캠프에서의 캠프파이어를 절정으로 공식 일정을 마감했다.

열차학교 장경미 교장(함평여중 교장)은 “힘든 대장정의 일정 속에서도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해 열차학교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자랑스럽다.”며 “열차 대장정의 경험이 학생들의 성장은 물론 교직원들의 역량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가 꿈꾸는 학생자치, '자치 가능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자치와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를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진행했다.



2013년부터 진행한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는 광주지역 학교의 학생회 임원과 자치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간에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서로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학생자치 확산의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다.

올해 캠프는 준비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준비위원으로 결합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했다. 운영내용으로 학생자치 대화마당 '자치 가능하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배우기, 우리가 꿈꾸는 학생자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치와 참여에 대한 고민과 실천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강화'를 2018년 광주교육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함에 따라 학생자치캠프가 학생들이 학교민주주의 실행의 당사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마을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어요"

전교생이 16명인 태백 철암중학교 학생들이 마을과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3월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대장정. 수요일마다 방과후 두 시간을 활용해 전문가로부터 영상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다. 주제를 정해 마을 곳곳을 탐색하고, 시나리오 쓰고, 연기도 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것까지 모두 학생들이 도맡아 진행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하는 활동이었고, 직접 다 만들어야 해서 창작의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김미옥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했다. 창작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평소 건넌 등하굣길, 취미 삼아 하던 동아리활동 등을 카메라에 담으니 왠지 모르게 색다른 느낌이 났다. 9월에 활동이 마무리되면 작지만 상영회도 가질 예정이다.

철암중학교 외에도 흥천 매산초등학교, 고성 대진중학교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희망재단,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한 '마을미디어' 사업이다. 강원도에 있는 작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취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지원한다. DMZ와 인접한 곳에 있는 대진중학교는 지역 특수성에 맞게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허경진 주무관은 "영상을 좋아하지만,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기 힘든 농산어촌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내가 사는 마을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얘기했다.



민족의 숨결 찾아 나선 '인문학기행단'

지난 7월 26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11명으로 구성된 '창의융합형 인문학기행단'은 10박11일 일정으로 중국 내몽골과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대 민족의 역사를 견학하는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



창의융합형 인문학기행은 학생들에게 중국과 러시아 일대에 산재해 있는 우리 민족의 지리, 문화, 역사 체험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인문학기행단은 인문학 기행 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발됐으며 이들은 각각 역사교류, 독립운동, 평화통일 기행단으로 편성돼 지난 4월에 발대식을 가졌으며 5~6월에 독서·토론·인문학 특강 등 사전활동과 1박2일 성장캠프 2회를 거쳤다.

이들은 사전교육에서 사전답사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및 준비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개인별로 설정

한 주제탐구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워크북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기행단별 모듈별 활동 계획을 설정했다.

최지수(계룡고등학교) 학생은 압록강 건너로 바라본 북녘 친구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면서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안녕, 안녕'이란 외침이 어느덧 뭉클함으로 다가왔으며 '다시 또 만나'란 함성은 단지 북한 아이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때 묻지 않은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조금은 더 통일을 위해 노력해보자고 열렬히 외친 걸지도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문학기행단은 사후 성장캠프를 통해 인문학기행 동안 보고 느꼈을 생각을 모아 책을 출간하여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을 되새기고 동행한 단원들과 서로 배운 것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안보현장 체험으로 안보의식 함양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비상대비체제 및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2018년도 하반기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 직원 240여 명은 우리나라 국방의 중추인 계룡대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육군 전시기록관 및 명예의 전당 견학, 페인트볼 건 사격, 병영식사 체험, 현충탑 참배, 보훈미래관 관람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트랜스 휴먼 시대의 인간과 인간 정체성



과학기술의 발전과 신인류

인류문명의 발전과 도약에 과학기술이 가장 큰 기여를 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바퀴, 종이, 나침반, 화약, 컴퓨터의 발명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자신도 변화시켜왔다. 피터 노왁은 자신의 저서 『휴먼 3.0(새로운 현재, 2015년)』에서 기술 관점에서의 인류의 변화를 세 단계로 설명한다. 최초의 인류는 ‘휴먼 1.0’으로 생명활동과 환경에 종속되었고 원시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 제2의 인류, ‘휴먼 2.0’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해온 인간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오늘날 첨단기술시대의 인류는 그가 ‘휴먼 3.0’이라고 부르는 제3의 인류다. 휴먼 3.0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생명활동과 환경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시스템을 결정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다.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네덜란드 과학자 파울 크뤼첸은 지금은 지질시대 중 홀로세(Holocene Epoch)가 아니라 인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류세(Anthropocene Epoch)라고 주장했다. 20만 년 전 처음 출현한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와 현재의 인류는 다른 모습이며, 미래 인류는 지금의 인류와는 다를 것이다.

미래학자 호세 코르테이로는 유전자 조작과 로봇의 발달로 현생인류는 신체 기능을 새롭게 변화시킨 ‘트랜스 휴먼’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트랜스 휴먼이란 과학기술이 인간 신체와 융합돼 나타나는 신인류를 말한다. 실제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문화운동으로서의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흐름도 있다. 트랜스 휴머니즘 사상가들은 인류가 더 확장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 자신을 변형시킬 것이며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될 인간은 ‘포스트 휴먼’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인류는 SF소설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다. 바이오 공학 발달로 인공수족이나 인공신장, 인공장기 등은 거의 상용화 직전 단계에 와 있고,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령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뇌신경 신호를 활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정보를 유입해 인간의 사유능력을 증강하는 BCI(Brain-Computer Interface)기술 연구에서는 인간 뇌파로 컴퓨터를 작동하고 뇌파를 이용해 드론을 작동시키는 실험도 하고 있다. 영화 <로보캅>에 나오는 로봇경찰은 살해된 인간 경찰의 몸을 티타늄으로 보강하고 기억을 지운 후 정교한 프로그램을 장착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기억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이보그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 기계가 상용화되는 미래에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봉착할 수 있다. 인간의 두뇌에 기계심장, 기계장기, 기계수족을 결합하면 인간인가 아닌가. 기계

와 인간이 융합된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간이며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등등.

현대기술문명은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이라는 두 축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으며 과학과 기술은 사회변동과 발전의 핵심동인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온 주체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이며, 아무리 편리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일지라도 사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인간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당장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계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이 기계노동으로 대체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과학기술을 버리거나 인간이 인공지능 기계와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든 인공지능 기계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가상현실이 아무리 생활할지라도 실제하는 현실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기계노동과 인간노동은 다르다.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기계가 하는 노동은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 노동이고, 인간의 노동은 감정, 감성을 동반하는 인간적 노동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노동의 기쁨을 깨닫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도 있지만 기계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에도 기계의 일과 인간의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의 두뇌에 기계심장, 기계장기,
기계수족을 결합하면 인간인가 아닌가.
기계와 인간이 융합된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술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정체성

한편, 기술이 발전하면 기계로 인한 인간소외, 자존감 상실, 인간 정체성에 대한 아노미 현상 등이 만연할 수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과 트랜스 휴먼시대에는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기술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어떤 것이 인간적인가’ 등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함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미래교육의 숙제다. 사회적 기능을 가진 교육의 우선적 목적은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규범을 체득하게 하는 사회화에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은 지식, 교양 교육보다는 기계나 다른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인간 정체성이 무너지고 나면 트랜스 휴먼이건 4차 산업혁명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스마트한 세상, 학생 인권침해 vs 교권침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스마트한 세상에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 기기가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 침해라는 의견과 사용하게 할 경우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여부와 머리모양·신발·가방·양말 등을 제한해온 교칙을 학생과 함께 논의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생인권만 강조해서는 학생생활지도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기기 사용 등 학생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

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반입·소지를 금지하는 규정 등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각 학교장에 권고한 사실과도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한 바 있다. 한편, 학부모 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관련 규정을 바라보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있었던 대전 모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관련 제보(디트뉴스24, 2018.7.12)에 따르면, “휴대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이들의 지도에 필요하다면 수긍하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등·하굣길에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활지도 규정에 대해 “시대에 맞게 학교에서 바뀌어야 함에도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 측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만 한다. 민주주의 시대에 이게 맞는 애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스마트 기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학습에 참여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도 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과 교과서 이외의 지식을 추구할 수 있어 지식의 확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장점이 있으며 수학 학습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였을 때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초, 중, 고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 증상이 심화되어 불필요하게 장시간 사용하거나, 스마트 기기가 옆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중독 현상을 경험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공간의 비대면

최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학습에 참여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도 한다.

성과 익명성의 특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정보나 폭력성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이버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 현상 등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선불리 어느 한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과 교육적 지도

학교 교사들은 인권위의 휴대폰 사용제한 완화 권고에 대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학생들에게 수거한 휴대전화 30대가 분실돼 교사가 차를 팔아 변상한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책 속을 파 휴대전화를 감



추고 수업 중에 보거나 휴대전화 수거 과정에서 교사에게 반항하고 욕설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학교 현장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교권침해, 학교폭력까지 유발하며 그야말로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폰 소지와 관련하여 암암리에 유행하는 방법은 두 개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이다. 하나는 학교에 제출하는 용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인이 소지하는 용

도이다. 만약 이 같은 현상이 만연해 있다면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반입, 소지 규정을 더 완화할 경우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게 왜 잘못이냐며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경우 교육적 측면을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학교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❷

LTE 넘어 해방공간을 찾아

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반입·소지를 금지하는 규정 등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각급 학교장에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과 함께 ‘학교의 교육적 제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한번 따지고 싶다.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는 무엇인가? 수업 시간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라거나 그 행복을 수업 시간에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면 반대다.

게임 대신 친구와 소통하는 문화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다. 얼마나 수업시간이 재미없으면 그럴까? 항변이 따라오겠지만 재미의 원천이 꼭 스마트 기기일 필요는 없다. 쉬는 시간에 게임이나 SNS 대신

교사와 친구들과 소통하면 안 될까? 스마트 기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학교에서만이라도’ 확인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자녀에게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굳이 스마트 기기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와 상관없이 학교 교육 차원에서도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제력을 가르쳐야 한다. 자제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 학생들이 자라서 기술 혁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관계없다. 왜 그래야 하는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하는 국가들

첫째, 스마트 기기는 지금 우리에게 중대하고 현실적인 위협이다.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없으면 일상이 힘든 ‘과의존 위험군’이 10대는 10명 중 3명이었고, 이들

의 70% 이상은 스마트 폰을 게임이나 SNS에 활용했다. SNS에서 타인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다 보니 집단 괴롭힘은 이미 SNS로 옮겨왔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SNS에 범죄를 자랑하는 일도 있었다. 선정적인 유해물을 쉽게 스트리밍하고 결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소비는 너무나 쉽다. 스마트 폰을 놓지 않고 SNS를 확인하다 눈 건강뿐 아니라 뽀아져 나오는 청색광(블루라이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청소년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스마트 기기와 SNS는 장점보다 폐해가 커 보인다.

최근 영국 정부는 연령에 따라 SNS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13세 이상만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해 말 16세 이하 청소년이 SNS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¹⁾ 기사의 내용 중 SNS가 청소년의 일상 활동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그들은,

테크놀로지는 창의적 사고와 사람들 간의 교류에 방해가 되며, 스마트 기기 이용을 최대한 늦추고 적극 개입하는 것을 부모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빨리 접할수록 중독되기 쉽다는 우려 때문에 법제화한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나서서 청소년을 규제하는 형국이다.

고등 사고능력은 아날로그에서 출발

둘째, 고등 사고능력은 아날로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의 IT 거인들은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2011년 10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리콘밸리 IT 업계 종사자들이 막상 자기 자녀들은 컴퓨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기사가 실렸다. 또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컴퓨터는 물론 스크린 보드, 빔프로젝터 등의 멀티미디어 기기도 없으며 학교에 일절 스마트 기기도 가져올 수 없는 토의와 정서적 교감이 중심인 발도르프 학교에 보낸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열네 살(우리

나이로 15~16세)이 될 때까지 ‘친구들은 다 있다’고 불평해도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집에서 PC 사용은 하루 45분으로 제한했다.²⁾ 대신 아이들이 책과 신문에 애착을 갖도록 교육해 왔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집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저녁이면 자녀들과 식탁에 앉아 책, 역사 그 외 여러 가지 화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아무도 아이패드나 컴퓨터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다.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그들이 의외로 구식 부모일까. 주목할 만한 것은 테크놀로지는 창의적 사고와 사람들 간의 교류에 방해가 되며, 스마트 기기 이용을 최대한 늦추고 적극 개입하는 것을 부모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 노동시간이 짧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

는 부모 애기로 들릴 것이다. 가정교육이 부족하다면 학교에서 채워주면 어떨까. 그러니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교육·훈련 통해 절제 배운다

간혹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정도를 결정하거나 스스로의 각성으로 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난다. 나는 그때마다 그 분들의 자제력에 놀란다. 스마트 기기의 편리하고 재미난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 쾌락에 대한 절제는 인간 본성과는 거리가 멀며, 오랜 기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교육을 할 때 무엇이든 아이들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이어서 가르치는 것 아니던가?

1) 빌게이츠, 더마러 2017.4.23

2) 뉴욕타임스, 2010.1.31

1) [사설] SNS에 빠진 청소년, 인증·셋다운제 검토할 때다, 동아일보 2018.3.13

아이들이 평가를 두려워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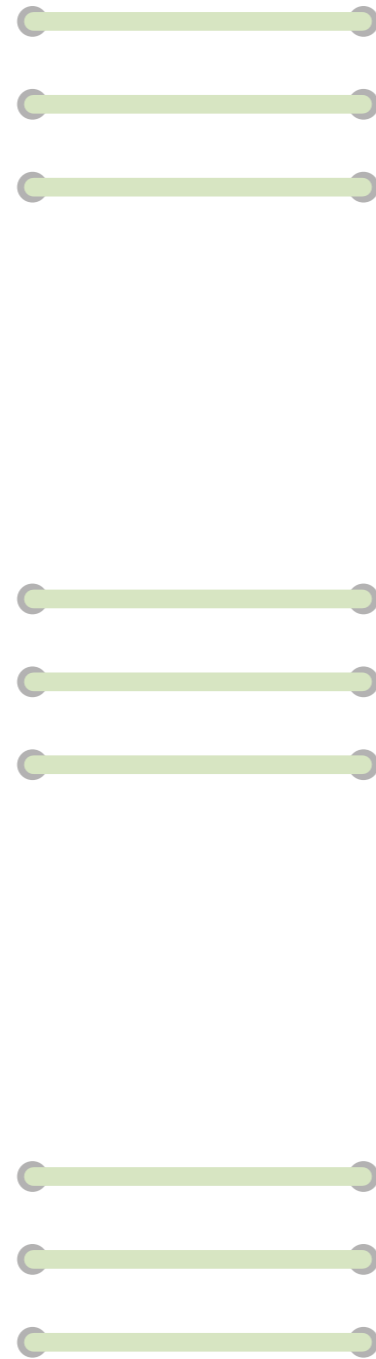
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평가에 많이 노출되고 평가가 수업의 연장선에 놓여야 합니다. 간혹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피드백과 도움을 받을 때 아이들은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평가는 수업의 완성... 다양하고 재미있는 평가로!

평가는 수업의 완성이고, 기대하는 적절한 성과를 내지 못한 학생은 그 원인에 맞는 지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평가를 배운 것을 익히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개인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정도를 보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평가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떨쳐내면 학생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평가를 부담 없이 받아들여야 이번에 조금 못했어도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수업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평가에도 도전해 보세요. 학생들이 평가를 기다리는 날도 올 것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평가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두려운 평가 No, 재미있는 평가 Yes

① 릴레이 퀴즈

두레별로 한 줄로 길게 앉게 합니다. 맨 앞 학생이 한 문제를 풀고 문항 옆에 이름을 적은 다음, 뒤에 앉은 학생에게 시험지를 넘깁니다. 두 번째 학생도 한 문제를 풀고 다음 학생에게 시험지를 넘깁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아이는 문제를 풀면 맨 앞으로 가져다줍니다. 끝난 뒤 모여서 어려웠던 문제를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게 합니다. 이때 문항에 상/중/하를 표시하고 정한 개수만큼 풀게 하면 일부 학생이 쉬운 문제만 골라서 푸는 일이 없지요.

② 돌이 살짝 퀴즈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학생은 짝수 문제만, 진 학생은 홀수 문제만 풀게 합니다. 문제를 다 풀면 친구에게 가르쳐주게 합니다.

③ 스피드 퀴즈

전체를 동그랗게 앉힙니다. 한 학생이 문제를 읽고 다음 학생에게 걸어가 다음 문제를 냅니다. 지난번 스피드 퀴즈보다 몇 개 더 맞혔는지 향상점수를 기록하면 남과 겨루지 않고 자신과 경쟁하게 된답니다.

④ 오픈 북 찬스

제한 시간 안에 모르는 내용을 책에서 찾아보게 합니다.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⑤ 내 짝꿍 찬스

모르는 문제를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근초고왕의 업적이 뭐야?” 물어서 “몰라.”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근대화가 뭐야?”, “근대화는~”하면 짝꿍 찬스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좋은 평가를 준비하고, 피드백을 열심히 하면 학생들도 놀라울 정도로 성장합니다. 적절한 방향으로 띄워주면 아이들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키우고,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힘이 키워진 아이들은 논술형, 서술형, 단답형, 객관식 그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무리 없이 잘 해냅니다.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②

중위권 성적인 예은이의 진로 고민

성적이 아주 좋거나 나쁜 학생들은 진로가 뚜렷하다. 그러나 중위권 학생들은 성적도 잘 오르지 않지만 공부보다 진로 선택이 더 어렵다. 적성을 중시하지만 점수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다 복잡한 입시요강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장 평범한 성적을 가진 중위권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은 문제

중학교 2학년 예은이 어머니가 진학실에 전화를 해오셨다. “우리 딸은 성적이 좋지 않아요. 30명 중에 20등 해요. 우리 딸 같은 애는 앞으로 어떻게 하죠?” 진학선생님이

물었다. “아직 2학년인데 좀 더 공부해보시죠.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고요. 애 오빠도 고2인데 공부하는 게 예은이하고 비슷했어요. 탈출구를 찾는 다면서 애니고에 들어갔는데, 적성에 안 맞는다고 다시 영문학과 갈 준비를 해요. 애는 그런 고생을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까지 예상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옆집 애는 3학년인데 가내신이 200점 만점에 197점이어서 과학고를 시험 삼아 치고, 실제로는 외고 간다고 해요. 이런 애들은 앞날이 환해서 좋겠지만 우리 집 애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교 입시는 4월에 원서를 쓰는 8개의 영재고부터 시작한다. 2차는 8월부터 원서를 받는 과학고들인데, 내신 197점 이상에 수학, 과학이 우수해야 한다. 3차는 10월부터 시작하는 48개 특성화고이고, 4차는 12월에 원서를 쓰는 전국의 일반고들이다. 4차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도 동시에 지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중학생들은 고교입시를 5번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은이 같은 중위권 학생은 사실상 입시전략이 있을 수 없고 일반고에 한 번만 지원하면 되는데, 예은이 어머니는 무얼 걱정하시는 걸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중위권 학생의 입시가 가장 어렵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 이들의 진로가 가장 난해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얼 하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고 공부 방향을 정하면 네가 원하는

미래에 좀 더 가까워질 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예은 지도

진학선생님이 예은이를 상담해보니 대부분의 아이들, 즉 남보다 뛰어나지 않은, 어찌 보면 매우 정상적인 중위권 아이의 고민이었다. “예은아, 평범한 성적으로 평범한 일반고에 가서 평범한 대학교의 평범한 학과에 가면 앞날이 어렵게 될까 봐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좀 더 낮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앞으로 무얼 하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고 공부 방향을 정하면 네가 원하는 미래에 좀 더 가까워질 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사실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예고의 디자인과에 가서 대학도 그쪽으로 진학하는 거 하고요. 일반고에 가서 컴퓨터학과로 가서 나중에 파워 블로거가 되는 거 하고요.”

진학선생님과 예은이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예은이는 중하위권 성적이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신을 5등급 이내로 유지하고 2년 정도 입시 디자인을 공부하면 예고의 디자인 학과에 갈 수 있다. 그 후 대학의 디자인학과에 가려면 내신 성적과 수능최저등급을 맞춰야 하니 앞으로도 공부는 조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일반고 학생처럼 여러 과목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만약 파워 블로거를 하려면 일반고에 진학하는 게 맞지만 대학 갈 때는 굳이 컴퓨터학과까지 갈 필요가 없다.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보다 상업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은이는 일반고에 진학해서 블로거의 길을 걷기로 했다. 중학교 때부터 블로거로 활동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훌륭한 블로거가 될 자신이 있기 때문 이란다. 게다가 친척 언니가 아기용품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하는데 웬만한 직장인보다 3배가량 수입이 좋으니 거기 가서 도움을 받겠다고 했다.

예은이는 자기 목표가 생기자 할 일이 생겼고,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물건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 기술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소개하려면 글 쓰는 솜씨가 필요하고, 블로그를 꾸미려면 그래픽을 배워야 하고, 시장을 조사하려면 외향적인 성격을 길러야 한다. 비록 성적이 중하위권이지만 그건 그거고, 앞으로 자신이 잘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은이는 학교 공부와 자신의 미래를 연결 지어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글짓기를 잘하려면 국어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세상을 알려면 사회과목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컴퓨터를 잘하려면 학원과 학교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친구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는 것……. 그래, 예은아, 성적도 중요하지만 네 생각이 중요해. 너처럼 평범한 아이들이 나름대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의 꿈, 곧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겠니? 그 길로 잘 걸어가렴. ㉠

시로 그린 명절 풍경, 백석의 「여우난 곶 족(族)」



언어를 매체로 삼은 시와 색채를 매체로 삼은 그림은 다르다. 색채는 의미의 명징함에서 언어를 따를 수 없으며, 언어는 형상의 구체성에서 그림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인 문서를 그림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에게 꼭 보여줘야 할 사물의 모양을 언어로 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언어로 묘사한 풍경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풍경보다 훨씬 생생하고 구체적일 때가 있다. 백석의 「여우난 곶 족」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림보다 더 생생한 언어로 그린 풍경

백석이 시의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우난 곶 족」이란 말은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도시세계에 대비되는 전근대적인 산골 마을 풍경을 그린다는 사실이 제목에서부터 전제되어 있는 셈이다. 백석은 이 시에서 이제는 우리의 까마득한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시를 쓸 당시에는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무척 친숙한 삶이었던 생활, 여우와 도깨비와 귀신들과 더불어 살던 사람들의 설화적 생활을 그려 보이고 있다.

명절은 고향에서 가족이 모이는 날이다. 살아 있는 가족이 모두 모여 안부를 물으며 회포를 풀고, 음식을 나누며 기억을 더듬는 것이 명절날이다. 그렇지만 이런 명절을 가장 순수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다. 아이들에게는 명절의 흥성거리는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어른들의 닭달이 유예된 자유스러운 시간이 마냥 행복한 까닭이다. 백석은 이 시에서 한 어린아이의 들뜨고 행복한 시각을 통해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정밀하게 명절 풍경을 그려 나간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얼굴에 별자국이 솟을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하루에 베 한 필을 찢다는 벌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리(新里)고우 고우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



언어로 묘사한 풍경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풍경보다 훨씬 생생하고 구체적일 때가 있다. 백석의 「여우난 곶 족」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백석은 이 시에서 한 어린아이의 들뜨고 행복한 시각을 통해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정밀하게 명절 풍경을 그려나간다.

한국 근대시의 역사에서 백석이 우리에게 처음 선보인, 독특한 열거체 서술어법의 이 두 행의 시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대단히 많다. 아마도 딸 많은 집안의 첫 번째 딸로 보이는 신리 고모는 그리 예쁜 얼굴이 아니다. 어릴 때 마마(천연두)를 앓아서 얼굴이 곰보가 된 까닭이다. 말할 때마다 눈을 껌뻑거리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이 고모는 그런데 무척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다. 그 사실은 하루에 베 한 필을 찢다는 이야기와 복숭아나무를 잘 키운 이야기로 알 수 있다. 이 큰고모는 고향 집에서 벌판 하나를 건너 있는 마을의 이씨 성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두 딸을 낳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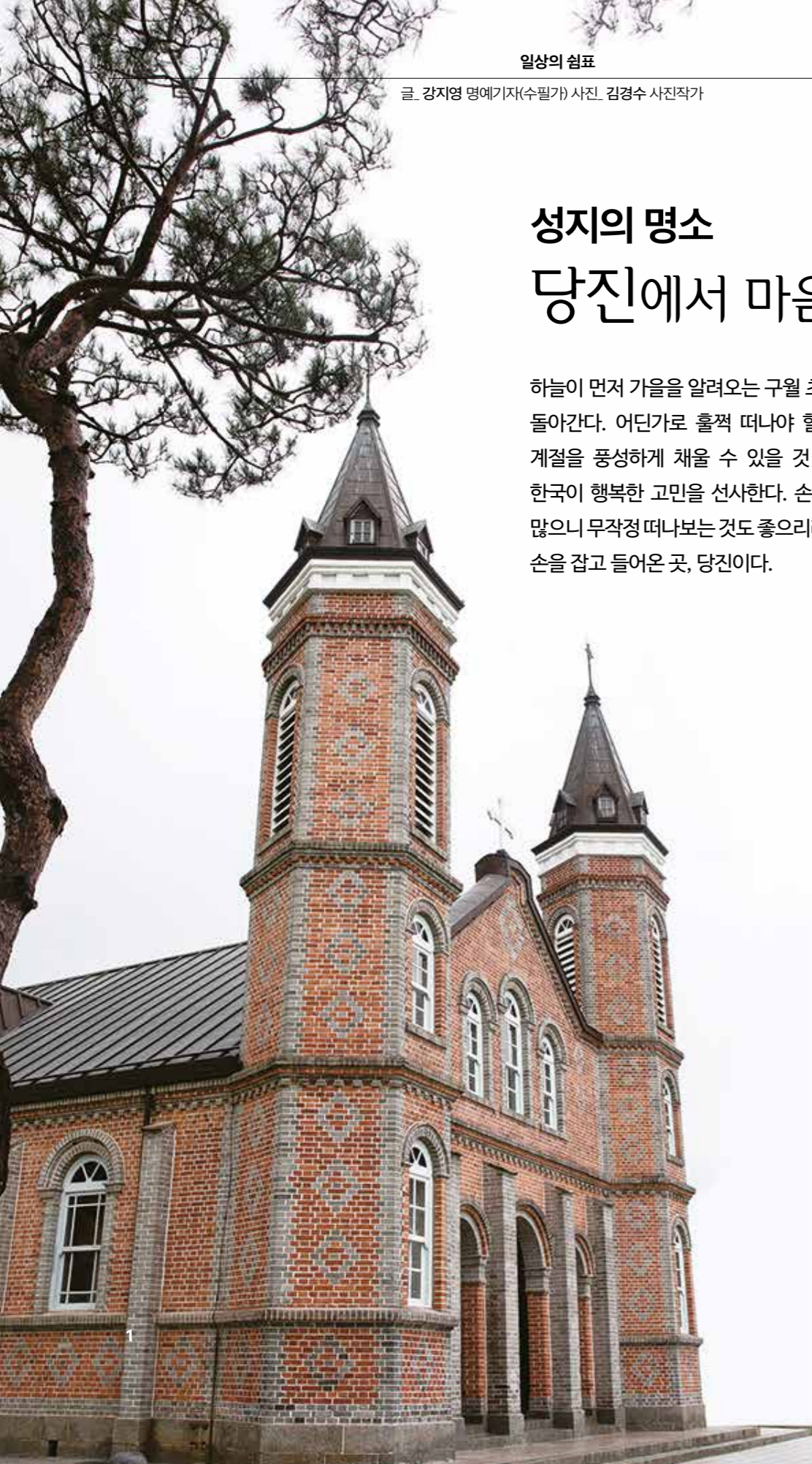
언어 스케치로 떠올리는 기억의 원천

백석은 「여우난 곶 족」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명절날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족들의 면면을 차례차례 묘사해 나간다. 단순하게 열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끝이 빨간 흰옷이 정하든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이란 묘사에서 볼 수 있듯 간결한 언어로 인물의 외모와 성격,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스케치를 진행해 나간다. 백석의 이런 간결한 언어 스케치에서 우리는 이 시에 등장하는 큰골 고모는 코끝이 빨간 얼굴이며 이야기할 때마다 과부 처지를 한탄하며 우는 성격이란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백석은 이렇게 그려나간 자신의 그림을 어른들의 면면에 대한 묘사 다음에 화자 자신이 주체가 된 맛있는 음식과 또래끼리의 행복한 놀이에 대한 스케치로 마감한다. 그것은 명절에 대한 우리 기억의 원천에는 가난한 시절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물과 또래의 친인척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렸던 시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때문일까? 백석이 열거해 보이는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차떡, 두부, 뽕은 잔디, 고사리, 도야지비계 등의 음식물들은 결코 비싸거나 화려한 음식이 아니지만 우리 유년의 허골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었던 기억들이다. 동시에 또래의 명절날 모인 아이들이 벌이던 쥐잡이, 숨굴박질, 꼬리잡이, 신랑각시 놀이 등은 장난감 하나 없이 성장했던 당시의 아이들,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얻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들이다. 그래서 이 유년의 행복이 명절이 되면 우리를 고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이다. ㉓

성지의 명소 당진에서 마음을 씻다

하늘이 먼저 가을을 알려오는 구월 초입, 바람을 따라 고개가 돌아간다. 어딘가로 훌쩍 떠나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이 계절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곳곳이 명소인 한국이 행복한 고만을 선사한다. 손짓하는 길동무가 이토록 많으니 무작정 떠나보는 것도 좋으리라. 언덕을 지나온 바람의 손을 잡고 들어온 곳, 당진이다.



- 1. 합덕성당
- 2. 솔피성지 입구
- 3.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복원한 집
- 4. 김대건 신부 동상

한국의 산티아고라는 버그네 순례길이 갈 길 바쁜 여행객의 발을 붙든다. 두 발로 걸어보는 것이 참된 순례길 여정일 터.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물고기 이정표를 따라 솔피성지를 향해 걷는다.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물고기를 따라 조형물과 논길을 벗 삼아 걷다 보니 멀리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다. 솔피성지다.

한국 최초의 신부가 태어난 솔피성지

소나무가 산을 이루고 있다는 뜻의 솔피.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태어난 곳이다. 십자가를 이고 있는 세 좌의 산을 형상화한 입구를 들어선다. 좌측의 십자가상으로 발길을 돌린다. 소나무가 균락을 이룬 평화로운 언덕을 배경으로 긴 나무에 걸려 고개를 떨구고 있는 성인. 예수의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 숭고한 희생 앞에 더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어떤 단어를 가져온다 해도 사족일 뿐인 장엄한 정신에 말없이 손을 모은다.

십자가상을 지나 순례길로 들어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사건을 형상화해 놓은 길이다. 청동상들이 재판을 받은 후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골고타 언덕으로의 여정과 그곳에서의 처형, 이후 바위 무덤에 묻힐 때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길 곳곳에서 슬픔, 고난, 고통이 생생히 배어난다. 그 길이 시공을 초월해 무언의 깨우침을 남긴다. 고통의 가시밭길을 알면서도, 버거움을 느끼면서도 뚜벅뚜벅 내 길을 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네 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나간다. 거창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에 앞을 향해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잠시 짐을 내려둘 여유를 가지는 게 행복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청동상과 모자이크 길을 한 바퀴 휘돌아 김대건 신부의 동상 앞에 이른다. 갓을 쓴 신부, 언젠가 전시회에서 본 김기창 화백의 그림이 겹쳐진다. 도포를 입은 선비와 물을 건너온 생소한 종교가 빚어내는 묘한 분위기에 발을 멈춰 섰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갓을 쓴 이들에게 무엇이 그토록 깊은 신앙심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그 믿음의 힘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 마음은 김대건 신부의 동상 앞에 작은 감 하나를 놓고 간 누군가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치고 간다.



동상에 목례를 남긴 후 이른 곳은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복원한 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이 김대건 신부의 초상을 마주 보고 있다.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다른 시대의 두 도반이 묘한 분위기를 빚어낸다. 십이 사도상으로 둘러싸인 솔피 아레나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기념관을 지나 매듭을 푸시는 성모의 집으로 들어간다. 내벽을 장식한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은은한 빛이 배어난다. 그 빛을 배경으로 매듭을 푸시는 성모상이 놓여있고 양쪽으로는 성모의 기도방과 예수의 기도방이 있다. 침묵의 한 가운데 서서 손을 모은다. 눈을 감고 매듭에 묶여 신음하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비손해 본다.

천주교 순례의 길을 따라 걷다

수녀와 수사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은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을 뒤로하고 다음 행선지를 찾아 간다. 십여 분을 달려 이른 곳은 합덕성당이다. 합덕성당은 기나긴 천주교 박해가 끝난 뒤 지어진 성당이다. 수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를 배출한 합덕성당은 대전 교구의 본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형상을 본뜬 고딕 양식의 독특한 외형이 눈을 사로잡는다. 신발을 벗고 성당 안으로 들어간다. 스테인드글라스 위로 쏟아지는 빛을 조명 삼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신도가 보인다. 무슨 사연이 있어 저토록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걸까. 숨죽여 옆자리에 앉아 마음을 씻어내 본다. 빛을 타고 고내리는 고요함이 먼지 낀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 경건함이란 어쩌면 이러한 순간의 전율을 이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밖으로 나오니 성당을 본 따 만든 형태의 12개의 종이 보인다. 하루에 세 번 올린다는 종. 그 위에 놓인 닭 조형물을 가슴에 담으며 다음 목적지인 신리성지로 향한다.

한국의 카타콤바로 불리는 신리성지. 신리성지는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주교가 머물렀던 곳이다. 다블뤼 주교가 황석두 루카의 도움으로 집필한 비망기는 『한국 천주교회사』의 기반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이 저서는 103위 성인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탁 트인 평야를 배경으로 조성된 신리성지 입구에 서니 우뚝 솟은 순교미술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다음으로 나지막한 성당과 다섯 채의 나무 경당이 눈을 지나간다. 이 고요하고 평온한 풍경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성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성당을 돌아 나와 들판을 걷는다.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머물다 갔을 소박한 경당에 손을 모으고 앉는다. 성 손자선 토마스의 조각상을 마주 보며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신념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생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귀를 두드리고 들어온다. 뒤이어 이 땅에 깃든 오랜 이야기가 파도가 되어 나를 감싸 안는다.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자신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여정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생의 완수일지도 모른다.

미술관이 된 폐교, 아미미술관

길을 돌아 나와 닿은 곳은 아미미술관이다. 미술관이 된 폐교는 작가 박기호와 설치 미술가 구현숙이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야외전시장과 5개의 실내 전시



5



6



7



8



9

- 5. 버그내 순례길
- 6. 합덕성당 전경
- 7. 신리성지
- 8. 아미미술관
- 9. 심훈 동상
- 10. 『상록수』를 집필한 필경사

실, 작가들의 작업실과 한옥숙소, 쉼터와 연구실로 이루어진 내실 있는 미술관이다. 하얀 벽을 장식하고 있는 색색의 작품들과 그 사이를 타고 오른 덩굴의 묘한 조화가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천장의 설

치작품이 이야기를 건네 온다. 창에 턱을 괴고 있는 푸른 잎들이 그 소곤거림을 이어받는다. 여기저기서 속삭거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귀를 간질인다.

쉬어가라 손짓을 보내오는 낡은 의자의 속삭임 기대 숨을 골라 본다. 빼겨거리는 의자에서 숨을 털어내고 향한 곳은 지베르니다. 모네도 수련도 없는 지베르니는 사진기를 든 아마추어 작가들과 커피를 내리는 주인장과 멀리서 온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다. 아이를 품에 안은 부부와 부모님을 모시고 온 딸과 중년의 부부들 사이에서 커피 한 잔을 뿔아 들고 나온다. 당진 지베르니의 커피 냄새가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던 모네의 지베르니 못지않은 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장독으로 길을 낸 숲길을 걸어 나와 옥상에 이른다. 아름다리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는 사람들과 그 옆으로 펼쳐진 파란 잔디밭.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씻기는 풍경을 안고 심훈 선생님을 찾아 나선다.



10

소설 『상록수』를 집필한 곳, 필경사

심훈 기념관과 나란히 있는 필경사는 심훈 선생이 『상록수』를 집필한 곳이다. 필경사는 ‘붓으로 발을 가는 집’이라는 뜻으로 심훈 선생이 직접 지은 당호다. 다부져 보이는 초가지붕의 집을 보자니 붓끝으로 돌발 같은 땅을 쓸고 또 쓸어 누군가 머물다 갈 수 있는 집을 지었을 작가 심훈이 그려진다. 필경사를 지나 심훈 기념관으로 들어간다. 자필 원고와 생전에 쓰던 책상과 벽 곳곳에 새겨진 시들이 작가의 세상으로 나를 인도한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값이 있게 살아 보자’는 『상록수』의 한 구절처럼 호기롭게 삶을 꾸려갔을 작가의 모습이 겹쳐진다. 기념관을 돌아 나오는 길, 애송하던 시 「그날이 오면」이 발을 붙든다. 시퍼렇게 날이 선 시인의 외침이 가슴을 긁고 간다.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던 비는 멎어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다. 오랜만에 뽀얀 햇살에 옷을 말린 듯 마음도 티끌 한 점 없이 말끔해져 있다. ㉞

NEWS BRIEF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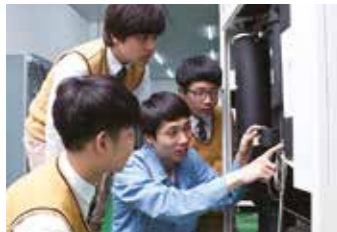
happyedu.moe.go.kr 2018.09

우즈벡 교원들과 자유학기 좋은 수업 나누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8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5일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수업 나눔을 실시하였다. 이번 수업 나눔은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의 우수 수업을 해외 교원에게 확산하여 우리 공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16명과 우즈벡 초·중등교원 60명이 참여하였다. 두 나라 교원들은 자유학기의 취지, 학생 중심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수업 나눔 이외에도 현지 중등사범리제이학교, 제31번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수업 혁신 사례를 자유학기 중심으로 소개하고,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보급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 점검 강화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제1회 꿈사다리장학제도 교육캠프 개최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8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꿈사다리장학제도 장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제1회 꿈사다리 교육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캠프는 올해 처음 제1기 장학생을 배출한 꿈사다리장학제도의 일환으로, 교육 취약 계층의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문화 체험 등 학교 밖의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꿈사다리 장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 의지가 높은 우수 인재로 학교 추천 및 시도교육청 선발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되어 올 3월부터 장학금 등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형편'이라는 장애물 없이 꿈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6회 수학교사 한마당 개최



지난 8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대전에서 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제6회 수학교사 한마당이 열렸다. 수학교사 한마당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수학교육의 변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질문과 배움이 일어나는 좋은 수학과제'를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수업, 활동과 탐구 중심 수업 등 학생 중심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초강연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수학교육 국제동향 등을 주제로 미래사회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하고,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교육정책을 소개하였고 분과모임에서는 좋은 수학과제 중심의 수학 수업, 수학클리닉 수업, 공학도구 활용 수업, 실생활 주제중심 수업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수학과눔학교, 교과연구회 등 80개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한국·독일 교원 분단의 현장을 함께 걷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한국·독일 교원교류 연수가 '통일 전후 사회통합과 학교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8월 8일(수) ~ 10일(금) 서울 및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에서 실시되었다. 한·독 교원 교류는 지난 '14년부터 독일의 사례를 통해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주교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KMK)의 후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교원 교류는 독일 현지 탐방 중심으로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독일 교원을 초청하여 현장 교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독일 사례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모색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교원들이 철원 비무장지대를 함께 걸으며 분단의 역사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바뀔 베를린 장벽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평화 공감대를 이어갔다.

세계 각국의 인재들, 한류에 날개를 달다



8월 말 전국 57개 대학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30명이 졸업하였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67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배출된 4600여 명의 졸업생들은 각국에서 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 정계, 재계,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301명의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귀국 환송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부는 한국 교육의 저력을 몸소 경험하며 학위를 취득한 만큼 자국의 발전은 물론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로서 한국과의 우호·친선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월 24일 (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8월 28일 (화)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만,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학기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기존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단 연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8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효과적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수립하면서, 조사체계를 다차원적으로 개편·보완하여 학교폭력 실태·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밝혀내고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 창업유망팀 300+, 가치 있는 도전을 시작하다



교육부는 8월 29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18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출정식'은 대학과 중·고교 유망 창업팀의 성과홍보 및 교류 증진을 통해 창업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처음으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중심의 기술창업팀(19팀)을 포함하여 총 300팀을 선발하였다. 출정식 행사에는 권역별 온라인 및 대면심사(7~8월)를 거쳐 선발된 대학 창업유망팀 300팀과 중·고교 창업동아리 40팀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하여 창업 아이템 전시 및 현장 상호평가, 선배 창업가 특강, 학생들 간 교류 등 미래 창업 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들 모두가 지금 가진 꿈과 열정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8월호



명예기사의 까칠한 수학

학습부담 완화와 수학교육 축소

수학 교과 내용의 내용은 1997년 7차 교육과정 때부터 20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습니다. 목적은 항상 사교육 축소와 학습부담 경감이었지요. 최근에는 '기하'를 수능능력시험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는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수학을 둘러싼 학습부담 완화와 수학교육 축소. 지난 호 <교육 썰전>의 뒷이야기를 명예기자들이 전합니다.

천성

반대

신현태 교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갖게 된 생각은 수학의 학습량이 많다는 것이다. 가르치면서도 굳이 여기까지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부담 완화(특히 수학 과목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수학이 필요하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면 된다. 수학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초 수학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질 높은 수학을 가르치면 된다.

김은영 학부모

계산은 기계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과정을 찾고 이해하는 수학교육이 시작된다면 어디까지 배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는 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 오히려 중학교 때 배운 비주얼 베이직 순서도가 회사의 업무 처리나 논리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답 맞추기보다 과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 방식으로 수학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학습 범위만 줄이는 개선 방법은 반대한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험을 통해 질적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조원표 교사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준비시켜야 한다. 수학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모든 학문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학교육의 축소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김민중 교사

학습부담을 덜기 위해 수학 내용의 난이도를 낮추고 학습량을 줄인다면 수학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기하도 분명히 수학의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며 모두가 고루 배워야 할 학문인데 굳이 기하만 따로 떼어 생각한다는 것은 기형적인 과목 운영이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수학을 비롯한 교과는 조정이나 축소가 필요하다면 전체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박경은 학교 교직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다. 이런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과정 중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 아닐 수 없다. 수학교육 범위 축소로 학과 공부 부담을 완화하면서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양묘생 교사

글로벌 시대에서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지식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큰 무기이다.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처럼 학생들에게 수학 '기하'를 가르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훗날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때 수학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일을 그르치는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을 읽고

학생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놀이'를 통한 학습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 특별 기획에서는 놀이와 하나 된 교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에서 '놀이'가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놀이 활동을 통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여기고, 학습에 흥미를 느껴 웃음으로 가득한 학교가 된다면 그러한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모니터단 윤서현

삶과 교육을 읽고

큰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 선생님을 보며 감동했다. 이런 선생님도 교직에 입문한 10년 동안은 직업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 충격이다. 당연히 교직이 천직이라 여기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문화 코드를 잘 알 수 있는 수단이 SNS인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니 교육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도 뜻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모니터단 윤유진

Event

9월호 <지금! 혁신교육>을 읽고 '씨앗'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행사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김다솜 대구 동구 경안로
박종문 포천 관인면 느름실길
조원표 부천 범안로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발행일 2018년 9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안순억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종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2018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찾았다!
내 일자리!



일시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10:00 ~ 17:00

장소
SETEC (3호선 학여울역)

빅람회 홈페이지
www.hsjobfair.co.kr



- 주최 매일경제 MBN 대한상공회의소 교육부 중소기업부 관세청
- 주관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SBC SC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적자원부세관 서울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국방전직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
- 후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한민국 국방부 인사혁신처